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의
결혼 및 성 만족에 미치는 효과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연 우 석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의
결혼 및 성 만족에 미치는 효과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연 우 석

인준서

연우석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김재규 

심사위원 박희경 

심사위원 채규만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Miller(1975)의 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Program(MCCP)에 기반하여 제작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이 부부들의 결혼 및 성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주관적으로 부부 갈등을 보고하는 부부들이었으며, 서울 소재 심리상담센터 세 곳과 인터넷 카페 및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공고하여 두 차례 모집하였다. 첫 번째 모집한 부부들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6쌍씩 무선 할당하였고, 두 번째 모집한 부부들은 실험집단에 4쌍, 통제집단에 3쌍씩 무선 할당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진행되면서 첫 번째 모집한 대상 중에서는 실험집단에서 2쌍, 통제집단에서 1쌍 그리고 두 번째 모집한 대상 중에서는 실험집단에서 1쌍, 통제집단에서 1쌍이 개인사정으로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실험집단은 총 7쌍, 통제집단 또한 총 7쌍이 참여하였다.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 주 1회씩 총 6회기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시간은 매 회기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150분간 진행하였다. 한편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행하지 않았다.

연구 도구로는 한국형 결혼 만족도 검사(K-MSI), 의사소통 유형 척도 단축형(CPQ-SF), 성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으로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χ^2 검정을 실시하고, 사전검사 점수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동질성이 확보된 척도는 혼합모형 분산분석(Mixed-design ANOVA)로 분석하여 치료의 효과성

과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하였다. 반면에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척도는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수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여 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검증을 위해 반복측정 일원변량 분석(Repeated measures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만족의 경우,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전반적 결혼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공유시간 갈등과 경제적 갈등에 대해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반복측정에 따라 통제집단 보다 크게 감소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 결혼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그리고 공유시간 갈등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효과는 사후검사에서 나타나 6주 후 추후검사 때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과 경제적 갈등의 경우는 프로그램 종료 후 추후검사에서 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공격행동, 비관습적 성 역할 태도, 원가족 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문제에서는 긍정적 변화의 경향성이 관찰되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둘째, 의사소통 유형의 경우,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비난/방어 의사소통 유형에서 긍정적 변화의 경향성이 관찰되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반복측정에 따라 통제집단 보다 크게 감소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프로그램 종료 후 6주 후

추후검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인 긍정적 상호작용 유형은 긍정적 변화의 경향성이 관찰되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셋째, 성 만족의 경우, 결혼 만족도 검사의 하위척도인 성적 불만족 척도에서는 긍정적 변화의 경향성이 관찰되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 만족도 척도에 대해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반복측정에 따라 통제집단 보다 크게 감소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효과는 6주 후 추후검사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은 결혼 만족에 있어서, 부부들의 전반적 결혼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공유시간 갈등, 그리고 경제적 갈등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 만족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의사소통 중 가장 심각한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 유형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은 갈등을 겪는 부부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주요어 : 부부치료, 성 의사소통, 결혼 만족도, 의사소통 유형, 성 만족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기존 부부치료 프로그램 연구의 개관 4
3. 연구 문제 및 가설 8

II. 이론적 배경

1. 다차원적 개념의 결혼 만족 11
2. 부부 의사소통
 - 1) 결혼만족과 의사소통의 관계 12
 - 2) 결혼만족과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 16
3. 결혼만족과 부부 성 만족의 관계 21
4. 성 만족
 - 1) 성 만족과 성 지식의 관계 24
 - 2) 성 만족과 성 의사소통의 관계 26
5. 미네소타 부부대화법 프로그램(MCCP) 29
6. 성 의사소통 훈련 33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38
2. 연구설계 40
3. 연구진행절차 40

4. 측정도구	
1)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	42
2) 의사소통 유형 척도 단축형(CPQ-SF)	46
3) 성 만족도 척도	47
5. 자료분석	48

IV. 연구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49
2)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증	51
2.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1)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54
2) 의사소통 유형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67
3) 성 만족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71

V. 논의

1. 연구의 결과 논의	76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81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표1> 부부치료 프로그램들의 성 관련 프로그램 구성요소 및 측정결과	6
<표2> MCCP 연구의 성 관련 프로그램 구성 요소 및 측정결과	7
<표3> 의사소통 유형의 분류	17
<표4> 연구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39
<표5> 연구 설계	40
<표6>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	42
<표7> 의사소통 유형 척도 단축형(CPQ-SF) 문항구성	47
<표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동질성 검증	50
<표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검증	52

그림 목 차

<그림1> 전반적 결혼 불만족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55
<그림2>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56
<그림3>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58
<그림4> 공격행동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59
<그림5> 공유시간 갈등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60
<그림6> 경제적 갈등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62
<그림7>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63
<그림8> 원가족 문제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64
<그림9>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66
<그림10> 긍정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68
<그림11> 비난/방어 의사소통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69
<그림12>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70
<그림13> 성적 불만족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72
<그림14> 성 만족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7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요즘 미디어에는 부부갈등에 대한 TV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다. SBS plus의 ‘미워도 다시 한 번’, EBS의 다큐프라임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SBS의 ‘스타부부쇼 자기야’와 ‘부부솔루션 미안해 사랑해’, MBC의 ‘부부솔루션 4주후에’, MBC every1의 ‘장미의 전쟁’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한 ‘사랑과 전쟁’까지 그야말로 부부갈등, 이혼위기 극복 프로그램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제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래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과 더불어 부부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부부갈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가족구성원들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Gotlib & Hammen, 1992). 200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나은가?’ 라는 질문에 젊은 기혼여성(20세~44세)의 49.0%가 ‘대체로 찬성’, 17.1%가 ‘전적으로 찬성’, 29.1%가 ‘별로 찬성하지 않음’, 그리고 4.8%만이 ‘전혀 찬성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 갈등이 삶의 질을 파괴하는 가장 부정적인 요인 중 하나이며, 개인에게 이혼이 가져다주는 악영향보다도 부부갈등이 더욱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근래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혼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혼하지 않은 부부 가운데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겪는 부부들이 많다. 이것은 시대적, 사회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결혼관계가 종전의 제도적 관계에서 우애적 관계로 바뀔에 따라 결혼관계에서 부부간의 친밀감과 만족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갈등이 증폭되며 결혼관계가 깨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권정혜, 채규만, 2000; 이현숙, 1998).

그렇다면 과연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결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 내적 변인들, 환경적 변인들, 그리고 대인간 변인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 내적 변인은 성격 특성같이 고유하게 지속되는 변인들을 말하며 환경적 변인은 각 배우자별 원가족과의 관계 혹은 인구학적 변인들을 말한다. 그리고 부부의 대인간 변인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주고받게 되는 모든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소통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 내적 변인, 환경적 변인, 그리고 대인간 변인이라는 용어는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내용면에서 크게 차이는 없다.

대인간 변인 중 어떠한 요인들이 결혼만족에 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것은 의사소통, 갈등해결 방식, 그리고 부부의 성 관계이다. 부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 국내외의 경험적 연구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부부의 성 문제, 성격차이 문제와 함께 부부간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며, 가족치료자들도 대화기술의 향상이 부부관계 개선의 필수요소라고 주장한다(Piercy & Sprenkle, 1990; Goldenberg & Goldenberg, 1991). 보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의 유형을 살펴보면,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유형이 결혼만족도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손상적, 상호회피, 남편요구/아내철회,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유형은 결혼만족도와 부적적으로 관련되어 있다(지혜정, 2002). 따라서, 국내 부부치료 프로그램 연구는 대부분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최규련, 1997; 이현숙, 1998; 공선숙, 2004; 김희진, 2004; 권

정혜, 채규만, 2000; 김규식, 김성희; 2001, 이화자, 김순옥, 2010; 권수정, 2007; 이지은, 2008; 박남숙, 2000; 김순옥, 2001; 송정아, 2006). 또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이들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더불어 갈등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습득하도록 하여 갈등해결 혹은 문제해결 이라는 효과를 얻었다(공선숙, 2004; 김규식, 김성희, 2001; 이화자, 김순옥, 2010; 송정아, 2006). 사회변화에 따라 부부관계가 가족관계의 중추적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과거보다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와의 적응과 협상, 의사소통, 융통성이 더 필요하게 되었으며(Berardo, 1990),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편과 아내들은 공통적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에 갈등해결 분야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학술보고서, 1994). 반면에 의사소통 방식을 강조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방식에 있어서의 향상을 얻지 못하기도 하였다(이기복, 2006). 김희진(2004)은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국내 발표된 결혼만족과 관련된 연구 논문 210편을 분석하여 총 70개의 변인을 확인하고 이를 빈도 분석하였으며, 이를 실제 임상현장에 있는 부부 및 가족 상담전문가 71명에게 중요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6가지의 요인으로 축약되었는데 이는 의사소통, 갈등해결 방법, 분노 및 스트레스 조절, 부부의 성(性), 원 가족과의 관계, 역할분담 및 자녀양육으로 나타났다. 조유리(2000)는 기존의 부부관련 연구들이 다루었던 부부갈등원을 개인적 영역, 부부 관계적 영역, 공동생활 영역, 제삼자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부부 관계적 영역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의사소통과 성을 함께 다루고 있음을 나타냈다(이신영, 1984; 박선미, 1987; 송말희, 이정우, 1986; 김갑숙, 1991; 김영자, 1992; 김재경, 1992; 이창

만, 1992; 홍원표, 1993; 최규련, 1993; 이미영, 박혜인, 1995). 그 외에 많은 기존 연구들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의사소통(강혜숙, 김영희, 2008; 정은, 2004; 정문자 등, 2010; 권윤아, 김득성, 2011)과 성(김효현, 1996; 김연, 유영주, 2002; 김영기, 한성열, 한민, 2011)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2009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혼사유별 이혼에서, 전체 이혼 건수 123,999건 중 ‘배우자 부정’이 10,351건으로 경제문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배우자 부정 즉, 외도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장의 상담치료자들은 성생활 문제가 혼외관계 뒤에 잠재해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Mcklin, 1980;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 2000).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대인간 변인, 즉 관계적 측면에서 의사소통, 갈등해결 방식, 그리고 성(性)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간 갈등을 해결하고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데에는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긍정적 갈등해결 방식, 그리고 부부간 성 만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부부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개선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2. 기존 부부치료 프로그램 연구의 개관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외 이론들에 기반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것들은 부부교육 프로그램, 부부집단상담 프로그램, 혹은 부부치료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보급되어 왔다. 이와 같은 부부치료 프로그램들은 각기 특정 이론 혹은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데, 근래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Gottman 이론(서선미, 2004; 공선숙, 2004; 김희진, 2004),

인지행동치료 이론(권정혜, 채규만, 2000; 김규식, 김성희, 2001; 김진숙, 권석만, 2010), Satir 이론(유양옥, 2005; 이동숙, 2008; 김정민, 이화자, 김순옥, 2010; 이화자, 최연실, 2010; 김정민, 2011), ENRICH 이론(권수정, 2007), 인간중심접근(박남숙, 2000), 온마음 상담이론(이지은, 2008), Guerney의 RE 이론(박남숙, 2000), 이마고 이론(송정아, 2006), Jacobson & Christensen의 수용적 통합이론(이기복, 2006), Bowen의 가족체계 이론(문정화, 2011) 그리고 Miller의 부부대화법 프로그램(MCCP)(김순옥, 1991; 최규련, 1997; 이현숙, 1998; 이주미, 2001) 등 매우 다양한 이론 및 모델에 기반하여 제작되고, 그 효과성에 대해 연구되었다. 이 중에서 Miller의 부부대화법 프로그램(MCCP)(1975)은 다른 의사소통을 중점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사이에서도 매우 구조화되어 있고 이를 습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시각적인 도구와 행동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Miller의 부부대화법 프로그램(MCCP)은 국외에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부부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Miller, Nunnally, & Wackman, 1975; Burnham, 1984; Busick, 1982; Russell 등, 1984; Witkin 등, 1983; Glander, 1985; Trost, 1985). 국내에서도 실제 다수의 상담센터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MCCP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훈련 방법과 전체 프로그램의 틀을 이용하여 성 의사소통 훈련을 적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앞에서 거론된 다양한 부부치료 프로그램들은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방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공선숙, 2004; 김희진, 2004; 김규식, 김성희, 2001; 이화자, 김순옥, 2010; 이지은, 2008). 그러나 결혼만족의 대인간 변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 만족의 향상까지 얻어낸 연구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이화자, 김순옥, 2010; 송정아, 2006).

<표 1> 부부치료 프로그램들의 성 관련 프로그램 구성요소 및 측정결과

연 구	중심 이론	성관련 구성요소 및 측정결과		
		프로그램 구성요소	측정	결과
박남숙(2000)	Guerney RE	×	×	×
김순옥(2001)	TA + Satir + MCCP	×	×	×
박남숙, 연문희(2002)	Guerney RE	성지식 성 의사소통	×	×
공성숙(2004)	Gottman	×	×	×
서선미(2004)	Gottman	×	×	×
김희진(2004)	Gottman + 긍정심리학	성지식 성 의사소통	○	성만족도
유양옥(2005)	Satir	×	×	×
송정아(2006)	IMAGO	×	×	×
이기복(2006)	수용적 통합치료	×	×	×
권수정(2007)	ENRICH	×	×	×
박성주, 박재황(2008)	문제해결 단기상담	×	×	×
이지은(2008)	온마음 상담이론	×	×	×
이동숙(2008)	Satir	성 역할 강의	○	성적 친밀감
이화자, 최연실(2010)	Satir	성지식	○	성적 친밀감
유옥(2010)	Gottman + 긍정심리학	×	×	×
김정민(2011)	Gottman + 긍정심리학	×	×	×

그 이유는, <표 1>과 같이 각 부부치료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심 이론도 다르고 따라서 서로 강조하는 요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많은 수의 연구들이 성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거나 해당 연구의 초점과 맞지 않아 측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Miller의 부부대화법 프로그램(MCCP)을 중심 모델로 삼고 있는데, 이 모델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했던 국내 연구들의 성 관련 내용 측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MCCP 연구의 성 관련 프로그램 구성 요소 및 측정결과

연구	중심 이론	성관련 구성요소 및 측정결과		
		프로그램 구성요소	측정	결과
최규련(1997)	MCCP	×	×	×
이현숙(1998)	MCCP	성관련 인지 수정	○	×

그렇다면 부부치료 프로그램 내에 어떤 과정들이 포함되어야 성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부부들의 성 만족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제외하면 성 관련 지식과 성 관련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혼여성에 대한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성지식이 많을수록 성태도는 개방적이고,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생활 만족 정도가 높았다(이인숙, 문정숙, 2000). 그리고 성관련 의사소통을 통해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결혼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다(Scoresby, 1977; 고정애,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의사소통의 구조화가 잘 이루어져있는 Miller의 부부대화법 프로그램(MCCP)을 중심 모델로 삼으면서, 성지식과 이를 토대로 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하여 부부간 의사소통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성 만족을 증

가시켜 궁극적으로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이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 의사소통 유형 및 성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은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1-1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전반적 결혼 불만족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1-2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1-3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1-4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공격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1-5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공유시간 갈등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1-6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경제적 갈등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1-7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8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원가족 문제가 감소할 것이다.

가설 1-9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감소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성 의사소통 훈련을 적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은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2-1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2-2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감소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성 의사소통 훈련을 적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은 부부의 성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3-1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성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다차원적 개념의 결혼 만족

결혼생활에서의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질이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서 결혼의 적응도(adjustment), 행복도(happiness), 만족도(satisfaction) 등 유사한 용어의 개념들이 50년의 가족연구 분야에서 연구 주제가 되어왔다(정현숙, 1997). Hawkins & James (1968)는 결혼 만족도를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이인수, 유영주, 1986에서 재인용). Burgess & Locke (1945)는 결혼 만족도를 ‘한 개인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서 불만족하는가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태도’라고 정의하였으며, Roach, Franzier & Browden (1981)은 결혼 만족도를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얼마만큼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하는 선호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외에도 결혼 만족도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었으며, 결혼 행복도, 결혼 적응도, 결혼 성공도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려졌다.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인 결혼의 질, 즉 한 배우자의 역할 기대와 다른 배우자의 역할 수행 사이의 일치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결혼생활에서 충족되어지는 욕구, 기대, 소망의 정도이다(오경희, 1997).

결혼 만족도를 단일차원으로 개념화할 것인가 아니면 다차원으로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혼 만족도의 측정에서 늘 논란이 되어왔다. 이 분야의 연구의 효시인 Burgess와 Cottrell(1939)은 처음 결혼 성공도를 일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나, Burgess & Wallin(1953)은 후에 결혼 관계의 프로파일을 탐색하기 위해 하위차원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1970

년대 후반부터는 결혼 생활을 다차원적으로 개념화하고, 다차원 척도를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부부관계에서의 의사소통과정, 경제적 문제, 성관계,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 등 특수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활발해져 부부만족도를 다 차원적으로 개념화 하는데 대한 경험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권정혜, 채규만, 1999a). 권정혜, 채규만(1999b)은 다차원의 개념으로 제작되어 타당도 척도 2개를 제외한 12개 하위척도를 가진 K-MSI을 이용하여 이혼상담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혼상담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성역할 태도 척도, 원가족 문제 척도, 자녀 불만족 척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규준집단의 여성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만족도가 결혼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며 결혼 만족도와 결혼 안정성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이혼상담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확인 하였다. 특히 이혼상담 여성들이 결혼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본 결과 본 연구에서도 보다 세부적이고 통합적인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차원적 개념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2. 부부 의사소통

1) 결혼만족과 의사소통의 관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 결혼생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결혼생활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임승락, 권정혜, 1998). Noller & Fitzpatrick(1990)는 결혼생활의 만

족을 위해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Buunk & Kerkstra(1988)은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부부들은 불만족하는 부부들보다 더 자주 상대방에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방 배우자들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더 정확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Noller, 1984). Burke와 동료들(1976)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더 많이 노출시킬수록 부부 모두 결혼만족이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Levinger(1965)의 연구에서는, 더 만족스런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덜 만족스런 관계의 부부들보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불유쾌한 감정들을 많이 노출하였다. 결혼만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나 부부치료 사례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은 부부간의 대화기술과 문제해결 능력이 결혼생활을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윤성숙, 1996; Jacobson & Magolin, 1979; Knudson, Sommers & Golding, 1980; Vincent, Weiss, & Brichler, 1975). 김수연 등(1993)은 부부간에 응집력과 적응력이 좋을수록 의사소통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정은미 등(1996)은 부부가 자기 개방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송말희, 이정우(1986)도 부부간의 의사소통 이해도와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최규련(1993) 또한 취업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간의 대화만족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화자(1991)와 김혜경(1996)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 효율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박태영(1998)은 남편들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부부간 대화의 양과 시간도 중요한데, 행복한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rchler, 1989). 행복한 결혼생활과 부부간 의사소통의 관계를 보면, Feldman(1971)은 부부간에 상호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결혼생활에 있어서 높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고, Udry(1971)은 의사소통의 결핍이 결혼을 불행으로 이끄는 것인지, 불행한 결혼이 의사소통의 결핍을 가져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성공적인 결혼의 열쇠임에는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정순(1982)은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사이의 의사소통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행복한 부부일수록 부부 상호간에 대화를 많이 가지며, 언어의 선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을 더 표시하며, 부부간에 얘기할 주제를 넓게 갖고 있고,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면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인정한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가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며, 비언어적인 방법을 보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권정혜, 채규만(1999)의 연구에서, 이혼상담집단은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와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는 이혼상담집단의 부부가 서로 애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이 결혼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결혼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였다(Gurman & Kniskern, 1981). 따라서 부부관계의 향상이나 결혼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부부가 의사소통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나 전략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많은 연구자들은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있음을 주장해왔다. Piercy & Lobsenz(1994)에 따르면, 남녀 간의 의사소통 스타일의 차이에 대해서, 여성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주로 하는 반면, 남

성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주로 한다. 남성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여성은 부부관계의 구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반면, 남성은 보다 추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은 상대방의 동의를 원하지만, 남성은 'Yes' 혹은 'No'와 같이 상대방의 결정을 원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방식 중 특히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표현방식은 남녀 간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들이 보여 주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친밀성과 관련된 행동, 즉, 감정에 대한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alswick과 동료들(1997)도 남성들은 사랑이나 행복, 슬픔, 기쁨, 흥미 등과 같은 정서적인 영역에 대한 표현을 적게 하는 편인데, 그 이유로는 성에 부과되는 사회적인 역할기대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Hoffman(1977)은 공감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공감능력의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미미했지만 공감행동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여성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자각하고 대리적인 정서적 반응을 하는 반면에 남성은 정서적인 공감보다는 대안적인 행동을, 즉 문제해결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Sabatelli, Buck, & Dreyer(1982)의 연구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에서 정서적 표현양식에 따라 남녀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편은 아내가 말보다 행동적인 언어로 표현하는데 더 만족감을 느끼지만, 반면에 아내는 남편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서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Sade & Notarius, 1985). 또한 Rubin(1976)은 결혼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공유된 언어가 결핍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수동적이고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방향으로 훈련되는 반면에 남성은 능동적이고 이성적이고 비정서적인 방법으로 훈련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Hawkins, Weisberg, & Ray(1980)는 결혼관계에서 배우자가 선호하는 의사소통 양식에 관한

연구에서 남편들은 아내의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아내의 불만족 수준이 남편보다 훨씬 높았다(Markman, Renick, Floyd, Stanley & Clements, 1993). 이처럼 정서적 표현양식에 있어서 부부간의 차이는 부부간의 친밀도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를 이해시키고 그 차이를 좁히도록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2) 결혼만족과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일부 연구자들은 의사소통 기술 그 자체보다는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형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다(Jacobson, 1989; Gottman, 1994; Gable, Reis, Impett, & Asher, 2004). 부부간 의사소통은 크게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는 부부가 서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의견을 협상하는 ‘상호 타당화’(Mutual validation: Gottman, 1979)와 ‘직접적인 협상’(direct negotiation: Peterson, 1983) 등이 있으며 부부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생활 만족도를 더욱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부부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과정에는 서로 불평만을 계속 이야기하는 ‘상호-불평’(mutual-complaint: Gottman, 1979)과 한 배우자는 불평, 비판을 하면서 요구를 하지만, 상대 배우자는 수동적으로 논의에서 철회하는 ‘요구/철회 의사소통’(demand/withdraw communication

: Christensen & Heavey, 1990) 등이 있다.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은 부부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분노, 원망,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악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부부관계의 상호작용 유형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고정화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변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중요 연구들에서 나타난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의사소통 유형의 분류

분 류	Christensen & Shenk(1991)	Gottman(1994)	Futris 등(2010)
기능적 의사소통	상호 건설적	부드럽게 시동 걸다 파트너에게 호응한다. 보수공사를 하다 영향력을 받아들이다	상호 건설적
역기능적 의사소통	요구/철회 (납편요구/부인철회 부인요구/납편철회)	비난 경멸 방어 무반응(=철회)	비난/방어 요구/철회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정의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유형 척도(CPQ)의 개발과 발전 과정을 따라 가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Christensen & Sullaway(1984)는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 분류를 하고 이것에 맞춰 부부 의사소통 유형 척도(Couple 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 CPQ)를 개발했다. CPQ는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 전과 의

는 중 그리고 의논 후의 세 국면으로 나누어 평정하는 것이다. CPQ와 이것의 하위척도는 부부 의사소통 연구와 치료에 폭넓게 사용되어져 왔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신뢰로운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Christensen, Eldridge, Catta-Preta, Lim, & Santagata, 2006; Doss, Thum, Sevier, Atkins, & Chirstensen, 2005; Roberts, 2000; 임승락, 권정혜, 1998; 이현숙, 1998).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CPQ의 하위 척도들을 서로 다르게 개념화해 왔는데, Christensen & Shenk(1991)는 두 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었는데,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과 ‘요구/철회’ 의사소통이 그것이다.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은 기능적 의사소통이며, 반면에 요구/철회 의사소통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다. 요구/철회 의사소통은 다시 성별에 의해 남편요구/부인철회, 부인요구/남편철회로 나누었다.

Christesen & Heavey (1990)은 CPQ의 단축형(CPQ-Short Form)을 개발했다. 단축형은 3개의 국면을 2개의 국면(의논 전, 의논 중)으로 축소하여 전형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한다. 두 국면에서 ‘요구/철회’ 의사소통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항들은 CPQ로부터 선택된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6문항은 배우자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요구/철회) 의사소통을 측정하고, 5문항은 기능적 상호작용(긍정적 상호작용) 유형이다. 즉, 6개 문항은 한 배우자가 논의 하려 하면 다른 배우자는 회피하거나, 한 배우자는 비난하고 다른 배우자는 자신을 옹호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개 문항은 서로 토론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타협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CPQ-SF 또한 여러 연구들에 의해 서로 조금씩 다르게 개념화 되어 왔다.

Futris, Campbell, Nielsen, & Burwell(2010)은 CPQ-SF의 사용과 채점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부 상호작용에 대해서 Gottman의 폭넓은 연구로부터 추출한 척도 구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전

형적으로 CPQ-SF를 사용했던 연구자들은 두 개의 하위척도 - 요구/철회 의사소통과 긍정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Gottman(1994)은 비난/방어 유형은 요구/철회 행동의 유형으로 섞여서 개념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Gottman(1994)은 4개의 역기능적 행동 과정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Gottman은 이를 ‘계시록의 네 기사(the Four Horsemen of the Apocalypse)’라고 표현했다). 바로 이 4개의 역기능적 행동이 친밀한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비난(criticism), 방어(defensiveness), 경멸(contempt), 그리고 벽쌓기(stonewalling)이다. 비난은 종종 불평, 비판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파트너의 성격이나 인격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이 보통 비난에 수반된다. 이것은 “당신은 항상” 혹은 “당신은 결코”라는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방어는 자신의 결백을 뒷받침하기 위해 혹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반격이다. 방어(defensiveness)는 종종 상대방의 불평에 역으로 불평하는 형태를 띤다. 경멸(contempt)은 적대감이나 혐오감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자신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눈을 부라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한다. 경멸에는 종종 빈정거림, 욕설 혹은 호전적인 태도가 포함된다. 벽쌓기(stonewalling)은 상대방이 듣기만 할 뿐 대화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혹은 말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흔히 “벽보고 이야기 하는 것 같다(like talking to a stone wall)”고 한다(Gottman, 2006). 앞에서 언급한 ‘철회’의 개념과 동일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방어(defensiveness)와 벽쌓기(stonewalling/철회)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어는 비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책임감의 부정을 포함하며 이 유형은 갈등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벽쌓기

(stonewalling/철회)만큼 파괴적이지는 않다. 이것은 상호작용으로부터 정서적, 심리적, 물리적 철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어적 행동은 배우자를 그나마 대화에 머물게 하지만, 벽쌓기는 상호작용을 극소화하거나 끝내버린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심각한 갈등상황에 놓인 부부들의 경우 요구/철회 행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덜 심각한 갈등 상황에 있는 부부의 경우는 요구/철회의 특징보다는 비난/방어의 특징을 더 많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Futris, Campbell, Nielsen, & Burwell(2010)은 Gottman의 연구에 기반하여, Christesen and Heavey (1990)가 주장한 기존의 두 요인(즉, 요구/철회, 긍정적 상호작용)보다는 세 요인(즉, 비난/방어, 요구/철회,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개념화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Futris, Campbell, Nielsen, & Burwell(2010)이 주장한 의사소통 유형 개념을 중심으로 참가자 부부들의 의사소통 유형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 유형과 결혼 만족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승락, 권정혜(1998)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중 요구/철회 행동, 특히 부인-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행동이 논의 자체에 대한 만족과 결혼생활 자체에 대한 만족 모두에 특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부인-요구/남편-철회 행동을 보일 때, 남편은 부부간의 문제해결의 효율성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었고, 부인은 부부관계의 애정과지지, 친밀감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었다. 요구/철회 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요구행동은 여성에게서, 자신이 배우자에게 변화를 바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관계지향성이 높은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났고, 철회 행동은 남성에게서, 상대 배우자가 자신에게 변화를 바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더 많이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자면, 남편은 부인의 계속된 요구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

제가 많아지는 것으로 받아들여 불안을 경험하고 이를 회피하는 것이고, 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의 이런 철회 행동이 애정과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여 더욱 심한 요구행동을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부인의 요구적 행동에 대해 남편은 철회나 회피반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패턴을 보이고 있다(이창숙, 유영주, 1998; 송성자, 1985; 오윤자, 1992; 이기숙, 1988).

3. 결혼만족과 부부 성 만족의 관계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부부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결혼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Gurman & Kniskern, 1981; Nicholes, 1988; Wince & Carey, 1991). 결혼 생활에서 성의 역할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부부는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서로의 신체적 결합과 감정적 만족 혹은 사랑을 통한 결합인 심리적 결합의 욕구를 갖게 된다(최신덕, 1991). 최근 여성들은 과거와는 달리 결혼생활의 질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성생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서선영, 2002). 이윤수(1998)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성생활이 결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은 사랑 또는 정신, 인격체로서의 교류이므로 성생활이 부부의 가장 훌륭한 의사소통수단이 되며(Scoresby, 1977). 또한 부부의 성은 애정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도모하는 관계적 기능, 성생활을 통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거나 문제점을 진단하는 바로미터의 기능, 그리고 부부의 결속과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기능을 한다(Means, 2000).

부부간의 성 만족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 관계에서 성욕구의 표현은 부

부결속을 강화시키며, 부부간의 성행위는 상호간의 존경과 사랑의 심도를 더해주며,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심리적 안정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Rice, 1984). 특히, 부부중심의 핵가족에서는 부부사이의 성 만족이 가장 높은 애정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Kaplan, 1990; 이창숙, 1996). 그리고 결혼 관계에서의 성생활은 두 사람간의 감정적, 인격적 표현이며, 서로간의 사랑과 존경, 관심과 인간성 및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하여 부부들은 일체감, 상호 감사, 긴장 완화, 사랑의 표현, 합의, 기분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상호작용하게 되며, 계속 성장, 발전되어 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문혜숙, 이정덕, 1994). 좋은 성적 적응은 다른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을 가져오고, 결혼생활이 만족하면 성적으로도 적응이 잘 되어 성적인 만족을 가져온다(Adams, 1980). Feldman(1971)은 부부의 친밀감과 부부 상호 간의 만족에 있어서 성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 관계의 질은 친밀감과 깊은 상호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Brommel & Galvin, 1996). Blumstein & Schwartz(1983)는 부부간에 원만한 성 생활이 좋은 관계의 중심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성 행동을 전체 결혼 만족에 기여하는 요인일 뿐 아니라 부부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보았다. Scoresby(1977)도 성 행동을 의사소통으로 보는 견해를 지지했고, 개방적이고 친밀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여 얻어진 성의 쾌감은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향상시켜준다고 하였다. 문혜숙 등(1994)도 성적 적응이 문제가 되는 중산층의 기혼남녀의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부부 적응과 성적적응을 알아본 결과, 부부적응과 성적적응이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현(1996)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성생활에 만족한 집단은 불만족 집단보다 부부 적응도가 높았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세 가지 하위 척도 - 1) '상호 호혜적 관계에서 즐거움 추구' 2)

‘성에 대한 배우자의 지나친 집착’ 3) ‘단조롭고 지루한 성관계’ 모두에서 성생활에 만족한 집단이 불만족한 집단보다 부부 적응도가 높았다. 또한, 고정애(2004)의 연구에서, 기혼여성들의 성 만족도는 결혼생활 만족도와 관계가 높았다. 특히 성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성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결혼 만족과 성 만족 간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다(Snyder, 1979; Marokoff & Gilliland, 1997; Kimes, 2001; Siberbogen, 2003)

결혼생활의 불만이나 문제의 증상은 주로 성생활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단순히 성적인 불만족이 결혼생활의 문제의 원인이었다면 불만이나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나, 대인관계에서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성의 질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윤가현, 1998). ‘성의 질적인 면’은 부부적응과 직결되며, 성적인 호환성이 크면 클수록 부부생활의 질은 높아진다(Lewins, Spanier, 1979). 부부를 상대로 결혼생활과 성생활에 관한 조사결과 남편의 57%, 아내의 67%가 성문제로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중앙일보 1995). 성생활은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기혼자들에게는 성생활의 만족이 결혼 생활의 만족과 직결되고 있다(Marokoff & Gilliland, 1997). 부부간에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은 성생활도 활발한 편이지만 이와 반대로 부부간의 성생활 부재는 별거나 이혼의 가능성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Donnelly, 1993). 부부간의 성적인 친밀성이 부부간의 적응이 원인인지 또는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동원, 1988). 부부의 불만족스런 성생활은 성격 차이, 부부간의 대화문제와 함께 이혼사유의 3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권정혜, 채규만, 2000). 성 관계는 부부관계 자체

이며 성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관계에 있어 많은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만, 일반 부부들의 경우에는 성적 문제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 잠복되어 있는 부부문제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부간 성 문제를 언어화해서 이를 직접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Stuart, 1980).

4. 성 만족

1) 성 만족과 성 지식의 관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기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인간이 성생활에 잘 적응하여 성적 만족을 느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된다.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작업활동 상태 등이 성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 지지, 신체상, 성태도, 정서상태 및 성적 행위등도 성생활 관련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장순복 외, 1998). 그 중 부부간의 성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성 지식과 성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홍성묵, 1999; 권정혜, 채규만, 2000; 김요완, 2000). 인간의 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지식은 성적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보다 만족스럽고 책임감 있는 성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Levin, 1976; Masters 등, 1985). 성 지식과 성 만족 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장순복(1989), Beach(1977), Whalom(1977)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Masters & Johnson(1970)은 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이 성 기능부전의 주요 요인이라고 하면서 성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에 대해 잘못된 지식과 무지로 인해 성생활에서 갈등

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홍성목, 1999; 김요완, 2000; 권정혜, 채규만, 2000). 남녀가 서로의 신체적, 심리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성생활만족의 부조화가 나타난다(최형기, 이응희 1999). 채규만(2008)은 성 지식과 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부들은 성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감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성행위를 성기 접촉과 오르가슴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전희의 행동이나 오르가슴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성행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떤 부부는 성적인 지식은 있지만 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보다는 부정확한 성 정보 때문에 효과적인 성적인 자극을 주고받지 못해서 성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성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할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자신이 가진 성 지식에 따른 성 태도는 성생활과 관련되어 일단 형성되면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서(Derogatis, 1980), 성 태도에 따라 성생활 만족여부가 달라진다(Rubin, 1965). 학력이 성 만족과 관련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부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성 만족 및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은 부부가 지니는 성 개념 및 성 지식과 같은 인지적 요인 역시 성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나타낸다(이홍식, 1989; 김요완, 2000; 홍숙선, 2001; 고정애, 2004).

이러한 성 지식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기초가 된다. 남성과 여성은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반응양식, 남녀 간의 생리, 심리, 사회적인 차이로 인해 부부간 성관계시 느끼는 만족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Strong & Devault, 1994). Leigh(1989)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의 51%와 여성의 9%가 욕망과 기쁨 때문에 성교를 하는 반면, 여성의 51%와 남성의 24%가 사랑의 정서적인 이유로 성교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성

과 여성은 성적반응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Masers & Johnson, 1970). 또한 성적 상호관계에 있어서 남성은 육체적인 접촉과 반응을 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정서적, 심리적 만족은 그것에 의해 동반되는 것이지만, 여성은 육체적 측면보다는 정서적, 심리적 만족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Cox, 1990). Hite(1976)의 연구에서도 상당수의 여성들이 성교 그 자체보다는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 등 신체적인 접촉을 더 즐거운 순간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성생활에서 부부간의 친밀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정리하자면, 일반적 성 지식 및 성과 관련된 성차를 이해하는 것이 성 만족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 만족과 성 의사소통의 관계

성 만족에 대해 신체적 자극 뿐 아니라 심리적 교류 및 친밀감을 중시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Landis(1975)에 의하면, 성적 적응이 잘 된 성생활 만족의 상태란 ‘성교 횟수나 성행위의 빈도라기보다는 부부간에 서로의 욕구가 잘 받아들여진 상태’로 보았다. Frank와 동료들(1986)은 ‘성생활 만족이란 신체적 자극과 심리적 자극사이의 함수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Hite(1976)는 특히, 여성의 성생활 만족은 ‘정서적 친밀감, 부드러움, 밀착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였고, Bell & Bell(1972)은 ‘성행위에서 상대방과의 친밀성, 하나 됨을 느끼는 것’을 성생활 만족이라고 하였다. Hunt(1974)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감정적으로 친밀한 경우에 더욱 만족스러우며, 특히 부인의 성 만족과 감정적 친밀감에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Putton & Warring(1985)은 부부간의 친밀감과 성생활 관계를 연구한 결과 결혼생활에서 성생활과 친밀감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많은 성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부부간 상호교류의 부족,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에 대한 의사소통의 부족에 있다. 성 만족의 부조화는 남녀가 서로의 신체적, 심리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에 기인하기도 하는데(최영기, 1997), 이는 성 지식의 부족뿐만 아니라 부부 간 의사소통의 부족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그 근본 원인이다. 성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의사소통을 강조한 성치료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강조되어 왔다. McDowell(1984)은 상호간의 사랑, 책임 수행 등에 의한 부부 상호간의 성생활이 잘 수행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특히 성생활에서 상대방에 대한 언어적 지지와 격려, 이해 등이 필요하며, 부부 상호간의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분명한 의사소통이 성생활 만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의사소통 중심의 성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의 조사연구에서 밝혔다. 이와 같이 개방적인 성 의사소통이 성 만족과 관련된다는 결과는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Waring & Chelune, 1983; Hoch 등, 1981; McDowell, 1984; Talmadge, 1985a; 양희란, 1993; 이정덕 등, 2000; 김요완, 2000; 박남숙, 연문희, 2002).

그러나 이와 같은 성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지레짐작'이다. Brentton(1994)은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들었는데, '전회는 반드시 성교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고방식 같은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결과, 단순한 전회로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부들이 상대방이 원한다고 지레짐작하고는 의무적으로 성 행위를 하려고 무리를 한다, 또한 성과 관련된 이중적인 표현이나 권위적 의사소통이 부부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MacNeil & Byers(1997)는 사람들이 성적 파트너와 그들의 성적 느낌

을 편히 의사소통 할 수 있다면 수많은 성문제들은 풀릴 수 있다고 하였다. 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개념이 성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념은 우리는 독심술가이며 상대방의 성적 느낌을 알아야만 한다는 그릇된 가정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성치료의 초기 회기에서, 성 문제를 가진 부부들은 주로 이렇게 말하곤 한다. “여보, 난 결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 혹은 “내 생각엔 당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했던 거야.” 하지만, 이러한 부부들이 자신의 성적 느낌에 대한 정보를 주고 상대방의 성적 느낌에 대해 물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배웠다면, 그들은 아마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적 파트너에게 그들의 느낌과 반응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성에 대한 대화는 우리의 가장 내면적이고도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는 보다 친밀하고 만족스런 성적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 하였다(Peggy, 2001).

고정애(2004)는 성관련 의사소통과 결혼 만족간의 직접적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성관련 의사소통 사용정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즉 성관련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coresby(1977)가 성을 ‘대화의 한 형태’로 정의하였고, 성에 대한 대화를 통하여 부부가 서로 정서, 사고, 개성 등을 교환하고 이것이 곧 부부의 성생활 자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부부가 의사소통이 원만치 못하면 성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판단이나 결정이 어려워진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적인 면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성행위에 관한 언어가 수치감을 주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 측면이다(윤가현, 1990).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어색함과 수치심을 줄이기 위해 성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미네소타 부부대화법(MCCP)에 근거한 방법으로 훈련하고자 하였다.

5. 미네소타 부부대화법 프로그램 (MCCP)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부부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결혼 생활 문제를 실제적으로 돕는 것으로서 치료적 차원의 부부치료와는 별도로 예방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최초로 개발된 것이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예: Marriage Enrichment Program, Marriage Encounter Program)과 부부 대화법(혹은 의사소통) 프로그램(Couple Communication Program)이다.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1968년 미국 미네소타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 가족연구센터(Family Study Center)의 Miller, Nunnally, & Wackman(1975) 등에 의해서 처음 개발되었다. 1971년 이래 부부 대화법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전문학술지 및 박사학위논문으로 발표되었다. 그 이후 Pillis Miller가 팀에 합류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여 1991년에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다른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혹은 의사소통 개선 프로그램과 구분하기 위해 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Program(MCCP)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국내에는 1990년대 채규만, 최규련(1996)이 도입하여 지금까지 폭넓은 적용 및 MCCP 지도자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해오고 있다.

미네소타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은 말하기, 듣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구조화하여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컨대 개인이 말하는 스타일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자신이 말하는 스타일을

자각하게 하고 보다 탐색적이고 자각적 말하기로의 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부부대화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사실, 즉 감각정보를 언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고, 감정, 소망을 분리하여 말하도록 한다. 한 배우자가 말하기 구조화를 따라가는 동안 다른 배우자는 듣기 구조화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면서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인정하기를 실행한다. 또한 다 듣고 난 후에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요약한다. 그러면서 추가로 더 알고 싶은 사실에 대해 개방적인 질문을 하게 한다. 부부가 이와 같이 구조화된 형태를 따라가기 용이하도록 말하기 매트와 듣기 매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말하기 매트 즉, ‘자각의 수레바퀴’에는 감각정보, 사고, 감정, 소망, 행동 5가지의 영역이 수레바퀴의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행동은 다시 현재, 과거, 미래로 분리되어 있고 소망은 자신, 상대방, 우리로 분리되어 표시되어 있다. 듣기 매트 즉, ‘듣기 주기 지도’에는 주의 기울이기, 인정하기, 정보 요청하기, 요약하기, 질문하기 5가지 주기가 인쇄되어 있다. 부부 중 말하는 이는 자각의 수레바퀴 매트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영역 위에 올라선 뒤에 그 영역에 해당하는 말을 하도록 하고, 듣는 이는 듣기 주기 지도 위에 올라선 뒤 순차적으로 영역을 옮겨가며 말하는 이에게 반응하도록 한다. 이를 번갈아 가면서 훈련하도록 한다. 부부 혹은 개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문제를 다루기 위한 9단계의 과정을 따르도록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자각의 수레바퀴의 영역에 맞게 감각정보, 사고, 감정, 행동(과거, 현재, 미래), 소망(자신, 상대방, 우리)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부부관계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된다(홍은희 등, 1998).

Baughman과 동료들(1982)은 MCCP에 참가한 부부들은 보다 효과적인 말하기와 듣기 방법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속

하고 효율적인 갈등해결을 가져오게 하며,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부모-자녀간 대화도 개선된다고 보고하였다. 부부대화법 연구자들은 “왜 어떤 부부들은 장기적 관계에서 성공하고, 어떤 부부들은 실패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반세기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양질의 연구 결과들을 얻었는데, 이 연구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부들의 정교한 상호작용을 측정하고, 이에 언어와 정서의 반응들을 종합하였다(Gottman & Notarius, 2000)고 하였다. 부부대화법 연구자들은 부부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화하는가, 즉 어떻게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표현에 반응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말하기와 듣기에 관해 중요하게 생각하였다(Miller, 1975).

Miller(1975)는 부부대화법의 이론적인 기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말하기-듣기’라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면서 개별화, 통찰, 협동이라는 세 가지 관계의 발달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개별화’는 한 인간이 되기 위한 중요한 능력이다. 이 능력을 발견하고 발달시키는 것이 개인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이 발달적인 과정인 개별화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것으로서 항상 개인이 주요 주체가 되는 인생을 통한 학습과정이며 변화 과정이다. 개별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각(Self-awareness)이다. 자기-자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면 개인에게 힘을 불어 넣어서 반사적이기 보다는 계획적이고, 손해 끼치지 보다는 배려하고, 사려 깊고, 안정적이며, 목적 있는 개인적인 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자신이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존재감은 자신의 내부와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게 된다. 둘째, 통찰이라는 과정은 다른 사람도 인간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체로서 분리되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

정하는 것이다. 통찰의 중요한 요소는 배우자-자각이다. 배우자-자각능력은 배우자에게 관심과 공감을 전달하고, 중요한 신체적, 감정적인 지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배우자-자각 능력은 신뢰, 헌신, 부부의 상호관계에서 안정성을 형성하고, 지지와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힘을 가져다준다. 셋째, 협동은 두 사람이 개별화와 통찰을 상호적으로 제공하거나, 관계의 삶에 중요한 요소로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협동은 효율적인 관계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기-자각과 배우자-자각을 통합하는 것이다. 협동의 중요한 요소는 관계-자각이다. 이는 상대방에게 헌신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실천이다. 자신을 위한 소망과 상대방을 위한 소망 모두 부부들이 나눌 수 있는 관계의 중요한 요소로서 정의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관계-자각은 효율적으로 말하기, 듣기, 우리를 위한 소망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심각한 상황뿐만 아니라 평범한 상황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서로가 분리되어 하는 것 보다는 함께 공유할 때 부부관계에 대한 신뢰감이 증가한다.

Miller(1975)의 부부대화법 프로그램(MCCP)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그 수가 적은 편이다. MCCP와 관련된 연구로는 최규련(1997)과 이현숙(199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최규련(1997)은 서울 근교 도시에서 25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4회기를 실시한 결과 아내들은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고 남편들은 우울감이 감소하였다. 또한 참가자 부부들은 교육 후 주관적으로 지식습득, 사고와 태도의 변화를 크게 인식했으며,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추후검사에서는 일부 대화기술의 활용과 주관적 변화가 사후검사보다 낮아진 것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변화가 대부분 유지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과 관련된 측정은 없었다. 이현숙(1998)은 미네소타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여 개

발하였다. 예비 프로그램 실시에서, 자각의 수레바퀴 매트 사용법에 대해 참가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매트 사용에 관한 과제를 이행하는 부부는 거의 없었다며 의사소통 훈련에 있어서 자각의 수레바퀴 매트를 사용하지 않았고, ‘갈등대처 8단계’의 계약과정을 수정, ‘대화유형 선택하기’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회기에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상은 5개 교회에서 모집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52쌍의 부부를 8회기에 걸쳐 진행한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전반적 결혼만족도는 상승했으나 남편의 경우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으나 부인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결혼 만족도(K-MSI)의 성적 불만족 하위척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MCCP가 다른 의사소통 프로그램에 비해 매우 구조화 되어 있으며 이를 습득하기에 좋은 시각적 도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MCCP를 참여자들이 쉽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현숙(1998)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어색함과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하였다. MCCP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야 하며, 성 지식 및 성 의사소통 훈련에 있어서 MCCP의 방식과 결코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MCCP의 방식에 맞춰서 성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6. 성 의사소통 훈련

부부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단순한 신체접촉이라는 협의적 매개로 하는 개념을 넘어서, 분위기 조성-전희(상호수용)-삽입관계-후회 간에 발생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으로 파악할 때, 성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는 언

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부부는 이런 성적 의사소통을 통해 감정이 전달되고 정서적 교감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느끼게 된다(Brentton, 1994). 따라서 성관계의 질은 친밀감과 깊은 상호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Brommel & Galvin, 1996). 이영실(1989)은 기혼여성의 성생활 불만족 요인들을 순위별로 나타내었는데, 첫째, 성행위에 대한 부부 상호간의 동의가 안 됨, 둘째 남편이 성관계 분위기를 만들지 못함, 셋째 성생활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음, 넷째 남편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였다. 이와 같이 부부간에 발생하는 문제 중 성생활에서의 갈등이 발생할 때, 부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홍성목, 2000; Conrad & Milburn, 200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관계에 있어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로써 친밀감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갈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성 의사소통 훈련을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혼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성 의사소통 훈련은 미네소타 부부대화법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제를 자신 부부의 성에 맞추어 실시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5회기에서는 우선 4회기 때의 과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난 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반부에서는 성 지식에 대한 강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후반부에서는 먼저, 성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자의 시범을 본 후, 각 부부들은 타 부부들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만한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며, 조명을 끄고 각 부부마다 촛불을 놓아주어 부부만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전반부에 성지식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는 이유는 후반부에 진행될 성 의사소통 훈련에 사용될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와 더불어 이를 실제 배우자에게서 확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 의사소통의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각의 수레바퀴’와 ‘듣기 주기 지도’가 인쇄된

A4 용지 두 장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한 사람이 자각의 수레바퀴의 영역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하기’를 하는 동안 배우자는 ‘듣기 주기 지도’의 영역을 짚어가며 ‘듣기’를 하게 된다. 말하는 사람은 감각정보, 사고, 감정, 소망, 행동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말하게 하며 듣는 사람은 주의 기울이기, 인정하기, 정보 요청하기, 요약하기, 질문하기를 따라 듣도록 한다. 대략 20분~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전반부에 설명한 성지식 강의 내용과 자신 부부들의 성 관계에서의 문제를 주제로 대화하게 한다. 다음은 성 의사소통 훈련에 사용될 ‘말하기’의 예시문이다. 괄호는 ‘자각의 수레바퀴’의 해당 영역을 의미한다.

<예시문 1>

남편 : 지난주에 우리가 처남 결혼식에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잖아? (감각정보) / 그때, 당신 마음을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사고) / (성) 관계를 가지려 했었어. (행동-과거) / 그러면 못이기는 척 관계를 가지고 나면 당신 화가 풀릴 것 같아서. (사고) / 그래서 돌아누운 당신을 뒤에서 슬며시 껴안았는데 (행동-과거) / 내 팔을 확 뿌리는 걸 보고 (감각정보) / 한숨만 나왔어 (감정) / 그리고 화해하고자 하는 날 거부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사고) / 화가 났었던 거야. (감정)

부인 : 그날 동생에 대해 당신이 너무 함부로 얘기한다는 생각에 (사고) / 너무 화가 났었어. (감정) / 침대에 누워서도 (행동) / 너무 당신이 남처럼 느껴지고 (사고) / 그 서운한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는데 (감정) / 당신이 끌어안으려 하니 (감각정보) / 너무 내 감정이 무시당하고 마치 당신이 당신 욕구만 채우려 하는 것 같고,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고) / 너무 서글퍼졌어. (감정) / 당신은 싸우고 난 후에 화해하고 싶어
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감각정보) / 그 마음이 이해가서 (사고) / 화는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아 (감정) / 나는 우리가 싸우고 나면 (성)관계로 풀기보
다는 그보다 내 서운한 감정을 알아주고 화해한 다음에 관계를 갖는 것이
더 좋아. (소망) / 그래야 내가 온전히 당신에게 받아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욱 좋은 느낌을 갖게 될 것 같아. (사고) / 그래줄 수 있었어?
(소망)

<예시문 2>

부인 :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당신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사고) /
방에 불이 켜진 채로 갑작스레 (성) 관계가 시작이 되면 (감각정보) / 저
는 너무 당혹스러워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감정) / 그리고 여러 집안의
물건들이 다 보여서 (감각정보) / 집중하기 힘들어. (감정) / 당신이 서두
르는 걸 보면, (감각정보) 흔히 말하듯 의무방어전 치르는 것 같고 마음
에 우리나라와서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사고) / 서운하고 외롭다는
느낌도 들어. (감정) / 나는 당신과 함께 좋은 느낌을 오래 느끼고 싶어
요. (소망)

남편 :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네. 당신이 어땠을까 생각
해보니 (사고) / 미안해 지는데...(감정) / 깜깜하면, 당신을 볼 수 없잖아.
그래서 난 밝은 상태에서 관계를 가질 때 (감각정보, 행동) / 더 흥분하는
것 같아. (감정) / 난 지금까지 좀 거칠고 야성적으로 보여야 당신을 만족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왔거든, (사고) /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서두르게 된
것 같아. (행동-과거) / 그럼 좀 천천히 해볼게. (행동-미래) / 그리고 우

리 관계에 있어서 당신이 좀 더 능동적으로 나에게 요구해 주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소망)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3개의 서울 소재 심리상담센터와 12개의 인터넷 카페 및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한 광고, 그리고 서울 소재 19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홍보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9쌍의 부부를 모집하였다. 특히 현재 부부 갈등상황에 놓여있다고 주관적으로 보고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과 결혼 년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첫 번째 모집한 12쌍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6쌍씩 무선할당 하여 배정하였고, 두 번째 모집한 7쌍을 실험집단에 4쌍, 통제집단에 3쌍을 무선할당하여 배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진행되면서 첫 번째 모집한 대상 중에서는 실험집단에서 2쌍, 통제집단에서 1쌍 그리고 두 번째 모집한 대상 중에서는 실험집단에서 1쌍, 통제집단에서 1쌍이 개인사정과 기타 사유로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실험집단은 총 7쌍, 통제집단은 총 7쌍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적사항	분 류	실험집단	통제집단
연 령	30대	10	10
	40대	4	4
결혼년수	5년 미만	6	8
	5~10년 미만	2	4
	10~20년 미만	6	2
재혼여부	초혼	13	14
	재혼	1	0
결혼과정	연애결혼	14	14
	중매결혼	0	0
자 녀 수	없음	6	6
	1명	4	4
	2명	4	4
직 업	관리직	0	2
	전문직	4	0
	사무직	4	2
	서비스직	1	1
	무직	1	0
	주부	2	3
	학생	1	0
	자영업	1	6
맞벌이 여부	맞벌이	8	8
	외벌이	6	6
학 력	고졸	5	5
	대학중퇴	1	3
	대졸	7	6
	대학원중퇴	1	0
종 교	없음	8	8
	불교	0	2
	개신교	4	3
	천주교	2	1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사전-사후 검사 설계를 사용한다.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 프로그램 종료 6주 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설계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연구 설계

G1	O1	X1	O2	O3
G2	O4		O5	O6

G1 : 실험집단

G2 : 통제집단

O1, O4 : 사전검사(K-MSI, CPQ-SF, 성 만족도척도)

O2, O5 : 사후검사(K-MSI, CPQ-SF, 성 만족도척도)

O3, O6 : 추후검사(K-MSI, CPQ-SF, 성 만족도척도)

X1 : 실험처치(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

3. 연구 진행절차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을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첫 번째 집단은 2011년 8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9월 17일은 추석연휴 관계로 휴회함), 두 번째 집단은 2012년 2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주 1회씩 총 6회기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시간은 한 회기당 휴식시

간을 포함하여 150분이 소요되었다.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본 연구자가 주 진행을 맡았으며 각 회기마다 임상심리학 석사과정 2명이 보조진행자로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은 Miller(1975)가 개발한 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하고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

회기	주제	목표	내용
1	‘말하기’ 스타일	1. 자신의 ‘말하기’ 스타일에 대한 자각	- 사전검사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협동적 결혼의 6가지 차원 - ‘말하기’ 4가지 스타일
2	‘말하기’ 구조화	1. 문제 확인하기 2. 자각의 수레바퀴 이해와 습득	- 문제 확인하기 - 자각의 수레바퀴 5영역 - 사고와 감정의 구분 - 자각의 수레바퀴 실습
3	‘듣기’ 구조화	1. 자신의 ‘듣기’ 스타일에 대한 자각 2. ‘듣기’ 주기에 대한 이해와 습득	- ‘듣기’ 4가지 스타일 - 경청하기 - ‘듣기’ 주기 실습
4	문제 그리기	1. 문제 해결로 나가기 위한 과정 습득	- 문제가 결과에 이르는 과정 - 문제 그리기 9단계 실습
5	성 의사소통	1. 남녀 성차 이해 2. 왜곡된 성지식 수정 3. 성 의사소통 습득	- 남녀 성차 - 성기관의 해부적 지식 - 성 개념의 남녀의 차이 - 남녀 성 반응 차이 - 성 의사소통 실습
6	총정리	1. 전체 프로그램 내용의 총체적 이해, 보완 2. 우리 부부의 이해	- 자각의 수레바퀴의 확장 - 듣기 주기의 보완 - 문제 그리기 정리 - 성 지식, 의사소통 확인 - 부부간 피드백

4. 측정도구

1)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 (K-MSI)

우리나라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를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권정혜와 채규만(1998)은 Synder(1979)에 의해 제작된 결혼 만족도 검사(MSI,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한국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2차의 예비검사를 거쳐 문항을 확정하였다.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K-MSI)를 998명의 우리나라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비교적 높은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지닌 검사임이 밝혀졌다(권정혜, 채규만, 1999). 두 개의 타당도 척도(비일관성 척도, 관습적 반응척도)와 한 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전반적 불만족 척도), 그리고 결혼생활의 세부 영역별 불만족을 측정하는 11개 척도를 포함하여 총 14개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타당도 척도와 두 개의 자녀 관련 척도(자녀 불만족 척도, 자녀 양육 갈등 척도)를 제외한 총 10개의 척도만 통계 분석하였다. K-MSI는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량을 민감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 전반적 불만족 척도(Global Distress, GDS)

본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이나 분위기를 말해 주는 지표로서 임상이나 상담 장면에서 부부관계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로서 사용할 수 있다. 문항 내용은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다른 부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부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결혼생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권정혜, 채규만(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계수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 (Affective Communication, AFC)

본 연구에서는 부부 정서적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총 13문항으로 배우자에게 느끼는 애정이나 정서적인 친밀성의 결여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에는 감정표현이나 정서적 지지의 결여, 감정적인 이해와 상호 개방의 결여를 재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권정혜, 채규만(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계수는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PSC)

본 연구에서는 부부 간 문제해결 의사소통의 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부부간의 의견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상의 문제를 평가한다.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거리감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불일치를 측정한다. 권정혜, 채규만(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계수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 공격 행동 척도 (Aggression, AGG)

배우자의 언어적 위협과 신체적인 공격 행동의 수준을 평가한다. 문항 내용은 화났을 때 소리 지르기, 황하고 문 닫기, 물건을 집어던지기 등의 위협적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또 가볍게 밀치는 행동에서부터 신체적인 상처를 입히는 행동에 이르는 다양한 신체적인 공격 행동을 평가한다. 권정혜, 채규만(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계수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6이었다.

■ 공유시간 갈등 척도 (Time Together, TTO)

배우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정도와 동지애의 정도를 측정한다. 문항 내용은 두 개의 요인으로 나뉘는데, 공유하는 여가 활동의 부족과 공통 관심사의 부족이다. 권정혜, 채규만(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계수는 .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 경제적 갈등 척도 (Disagreement About Finances, FIN)

가계관리와 관련된 부부간의 불일치 정도를 평가한다. 문항 내용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 배우자의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부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을 포함한다. 권정혜, 채규만(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계수는 .72였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 성적 불만족 척도(Sexual Dissatisfaction, SEX)

본 연구에서는 부부 성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총 13문항으로 성관계나 성과 관련된 성적 활동의 양과 질에 대한 불만족을 평가한다. 문항 내용은 성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 성행위와 관련된 불편한 기분, 성행위에 대한 배우자의 관심과 열정 부족에 대한 불만족 등을 포함한다. 권정혜, 채규만(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계수는 .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 (Role Orientation, ROR)

성역할, 가사 활동, 자녀 양육 등에 대한 비관습적 또는 개방적 태도를 평가한다. 문항은 가사활동 및 자녀 양육의 책임 분담, 배우자의 지위와 영향력 행사의 평등성, 배우자의 직업에 대한 태도 등을 측정한다. 권정혜, 채규만(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계수는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9이었다.

■ 원가족 문제 척도(Family History Of Distress, FAM)

자신의 원가족 내에서의 갈등을 반영한다. 문항은 원가족 문제의 세 가지 측면을 재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불행한 어린 시절, 가족들 간의 분열, 부모의 결혼생활에서의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정혜, 채규(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계수는 .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 (Conflict With In-Laws, CIL)

배우자 가족으로 인한 부부갈등 정도를 평가한다. 문항은 배우자가 자기 부모에게 비현실적으로 잘 해주도록 요구하는 것, 배우자 가족으로 인한 부부 갈등,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대처 양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정혜, 채규만(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계수는 .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2) 의사소통 유형 척도 단축형 (CPQ-SF)

부부의 의사소통 행동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총 35문항의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CPQ)(Christensen & Sullaway, 1984)을 Christensen & Heavey(1990)가 총 11문항으로 축약한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Short Form(CPQ-SF)을 사용하였다. CPQ-SF는 부부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처음 생길 때(문항 1~4)와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때(문항 5~11)의 두 국면에서 자신과 상대 배우자의 특정한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지각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언제나 그렇다’까지 9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승락

(1998)이 번역한 CPQ의 문항을 이용하여 CPQ-SF의 한글판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utris, Campbell, Nielsen, & Burwell (2010)의 CPQ-SF 연구에 근거하여, 다음의 3가지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비난/방어 의사소통’ 척도는 배우자 서로 비난하고 비난을 받은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변명 등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3문항의 합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 척도는 배우자 서로 문제에 대해서 논의, 불평, 요구할 때 다른 한 명은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수동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더 이상 의논하는 것을 피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5문항의 합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긍정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은 부부 상호간 문제에 대해 서로 토론, 표현, 타협하는 3문항의 합으로 구성된다. Futris, Campbell, Nielsen, & Burwell(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계수는 ‘비난/방어 의사소통’은 .83,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은 .71, 그리고 ‘긍정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은 .6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비난/방어 의사소통’은 .76,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은 .57, 그리고 ‘긍정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은 .62였다.

<표 7> 의사소통 유형 척도 단축형(CPQ-SF) 문항구성

하위 요인명	문항수	문항번호
비난/방어	3	6, 10, 11
상호 요구/철회	5	1, 3, 4, 8, 9
긍정적 상호작용	3	2, 5, 7

3) 성 만족도 척도

성생활 만족도 측정은 Derogatis와 Melisaratos(1979)가 개발한 DSFI (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의 제 10부 성 만족에 관한 문항 11개를 장순복(1989), 이민식(1988), 강희선, 김숙남, 장순복(1998) 등의 연구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DSFI 원본에서는 Yes 혹은 No의 2점 척도의 설문이었지만, 연구의 세밀성을 기하기 위해 Likert 5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장순복 (198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9$ 였고, 본 연구에서도 .79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으로 분석하였다.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사전검사 점수는 χ^2 검정을 실시하고, 한국형 결혼만족도 검사(K-MSI), 의사소통 유형 척도 단축형(CPQ-SF), 그리고 성 만족도 척도의 사전검사 점수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2)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동질성이 확보된 척도는 혼합모형 분산분석 (Mixed-design ANOVA)으로 분석하여 치료의 효과성과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한다. 반면에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척도는 사전검사점수를 공변수로, 종속변수를 사후검사점수로 하여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여 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며,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검사에 대해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서 동질한 집단인지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동질성 검증

변 인	분 류	실험집단	통제집단	χ^2	p
연 령	30대	10	10	.00	1.00
	40대	4	4		
결혼년수	5년 미만	6	8	2.95	.23
	5~10년 미만	2	4		
	10~20년 미만	6	2		
재혼여부	초혼	13	14	1.04	.31
	재혼	1	0		
결혼과정	연애결혼	14	14	-	-
	중매결혼	0	0		
자 녀 수	없음	6	6	.00	1.00
	1명	4	4		
	2명	4	4		
직 업	관리직	0	2	12.44	.09
	전문직	4	0		
	사무직	4	2		
	서비스직	1	1		
	무직	1	0		
	주부	2	3		
	학생	1	0		
	자영업	1	6		
맞벌이 여부	맞벌이	8	8	.00	1.00
	외벌이	6	6		
학 력	고졸	5	5	2.08	.56
	대학중퇴	1	3		
	대졸	7	6		
	대학원중퇴	1	0		
종 교	없음	8	8	2.48	.48
	불교	0	2		
	기독교	4	3		
	천주교	2	1		

동질성 검증 분석결과, 실험집단의 연령대는 30대 10명, 40대 4명이었으며, 결혼 년 수는 5년 미만의 신혼부부는 3쌍(6명), 5년~10년 미만 부부는 1쌍(2명), 10년~20년 미만 부부는 3쌍(6명)이었다. 재혼여부는 초혼이 13명, 재혼이 1명이었다. 결혼과정은 7쌍(14명) 모두 연애결혼이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3쌍(6명), 1명인 가정은 2쌍(4명), 2명인 가정은 2쌍(4명)이었다. 직업은 전문직 4명, 사무직 4명, 서비스직 1명, 무직 1명, 주부 2명, 학생 1명, 자영업 1명 이었다. 맞벌이 여부를 보면 맞벌이 하는 부부는 4쌍(8명), 외벌이는 3쌍(6명)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5명, 대학중퇴가 1명, 대졸 7명, 대학원 중퇴가 1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는 8명, 기독교 4명, 천주교 2명이었다.

통제집단의 연령대는 30대 10명, 40대 4명이었으며, 결혼 년 수는 5년 미만의 신혼부부는 4쌍(8명), 5년~10년 미만 부부는 2쌍(4명), 10년~20년 미만 부부는 1쌍(2명)이었다. 재혼여부는 14명 모두 초혼이었다. 결혼 과정은 7쌍(14명) 모두 연애결혼이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3쌍(6명), 1명인 가정은 2쌍(4명), 2명인 가정은 2쌍(4명)이었다. 직업은 관리직 2명, 사무직 2명, 서비스직 1명, 주부 3명, 자영업 6명이었다. 맞벌이 여부를 보면 맞벌이 하는 부부는 4쌍(8명), 외벌이는 3쌍(6명)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5명, 대학중퇴가 3명, 대졸 6명, 대학원 중퇴가 1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는 8명, 불교 2명, 기독교 3명, 천주교 1명이었다.

이상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χ^2 검증으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질한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2)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앞서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집단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결혼만족도 검사(K-MSI)의 10개 하위척도와 의사소통 유형 척도 단축형(CPQ-SF), 그리고 성 만족도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동질성 검증의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검증

변인	실험집단 (n=14)	통제집단 (n=14)	t
	M(SD)	M(SD)	
전반적 불만족	54.07(11.45)	44.00(10.60)	2.42*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36.21(8.01)	29.57(7.39)	2.28*
문제해결 의사소통	54.79(8.70)	46.43(7.54)	2.72*
공격행동	18.79(4.58)	17.57(5.35)	.67
K-MSI			
공유시간 갈등	27.29(5.31)	24.14(6.95)	1.34
경제적 갈등	26.29(7.08)	23.07(4.20)	1.46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	34.57(5.52)	31.86(4.37)	1.44
원가족 문제	24.64(7.22)	20.64(6.09)	1.59
배우자 가족과 갈등	19.79(8.47)	17.50(6.38)	.81
비난/방어	17.93(4.36)	10.79(6.58)	3.39**
CPQ-SF			
상호 요구/철회	23.50(6.51)	20.07(7.05)	1.34
긍정적 상호작용	14.36(5.15)	16.07(5.05)	-.89
성만족			
성적 불만족 ^a	28.21(9.41)	28.36(7.20)	-.05
성 만족도	31.79(6.96)	32.57(3.41)	-.38

*p<.05, **p<.01

^a 결혼 만족도 척도(K-MSI)의 하위척도.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두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결혼만족도 검사의 하위요인인 , 공격행동 ($t=.67, p=.524$), 공유시간 갈등($t=1.34, p=.190$), 경제적 갈등($t=1.46, p=.156$), 성적 불만족($t=-.05, p=.964$),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t=1.44, p=.161$), 원가족 문제($t=1.59, p=.124$), 배우자 가족과 갈등($t=.81, p=.427$)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반적 불만족($t=2.42, p=.023$),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t=2.28, p=.031$), 문제 해결 의사소통($t=2.72, p=.012$)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성 만족도($t=-.38, p=.708$)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의사소통 유형(CPQ-SF)의 하위요인인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t=1.34, p=.193$)와 긍정적 상호작용 의사소통($t=-.89, p=.382$)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비난/방어 의사소통($t=3.39, p=.00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동질성이 확보된 척도는 혼합모형 분산분석(Mixed-design ANOVA)으로 분석하여 치료의 효과성과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한다. 반면에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척도는 사전검사점수를 공변수로, 종속변수를 사후검사점수로 하여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여 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며,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검사에 대해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2.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이 부부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에서 동질성이 확보된 척도는 혼합모형 분산분석(Mixed-design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전검사에서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척도는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될 경우,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검사에 대해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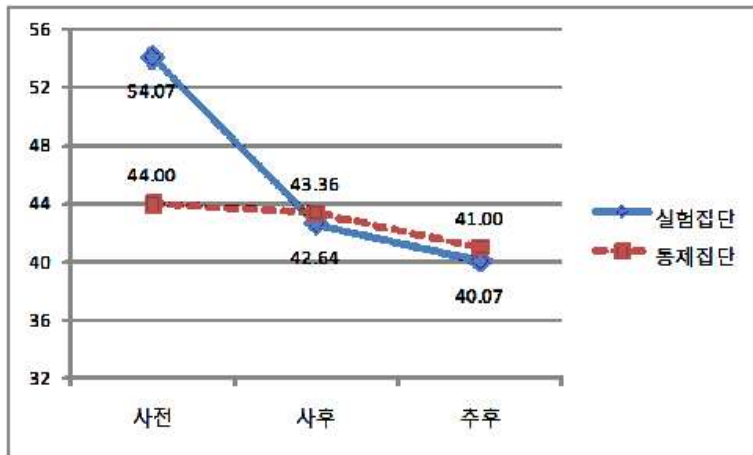
1) 결혼 만족도(K-MSI)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이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K-MSI)의 하위요인 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했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된 공격행동, 공유시간 갈등, 경제적 갈등, 성적 불만족,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 원가족 문제, 그리고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은 혼합모형 분산분석(Mixed-design ANOVA)을 실시하였다. 이들 척도 중 성적 불만족 척도는 성 만족에 미치는 프로그램 효과 검증 결과와 함께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첫째, 전반적 결혼 불만족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결혼 만족도 검사(K-MSI)의 하위요인 중 전반적 결혼 불만족도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반적 결혼 불만족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이들 자료에 대해 사전점수를 공변수,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독립변수, 그리고 사후점수를 종속변수로 공분산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조정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25)=5.35, p=.029$). 이는 전반적 결혼 불만족을 감소시키는데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전반적 결혼 불만족에 미치는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검사에 대해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Sidak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M_{사전}-M_{사후}=11.43, p=.003$),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M_{사후}-M_{추후}=2.57, p=.590$). 또한,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_{사전}-M_{추후}=14.0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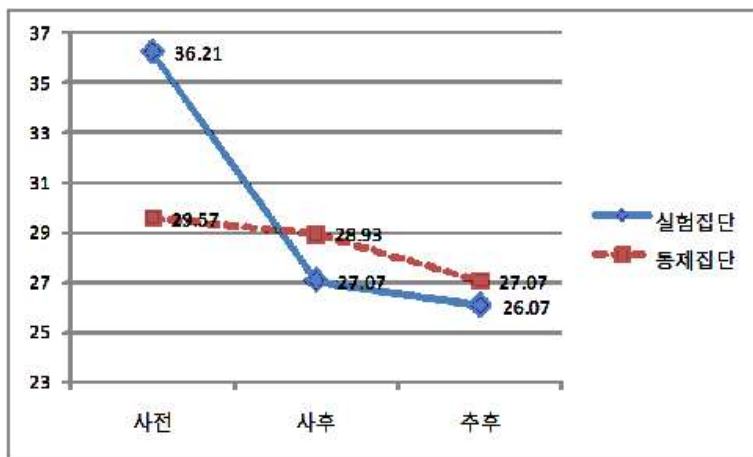
결과를 종합해보면, 프로그램은 전반적 결혼 불만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 효과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 나타났으며 6

주 후에도 그 효과는 지속되었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전반적 결혼 불만족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1의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둘째,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결혼 만족도 검사(K-MSI)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도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이들 자료에 대해 사전점수를 공변수,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독립변수, 그리고 사후점수를 종속변수로 공분산 분석한 결과, 사전점수를 통제했을 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조정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25)=7.56, p=.011$). 이는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을 감소시키는데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에 미치는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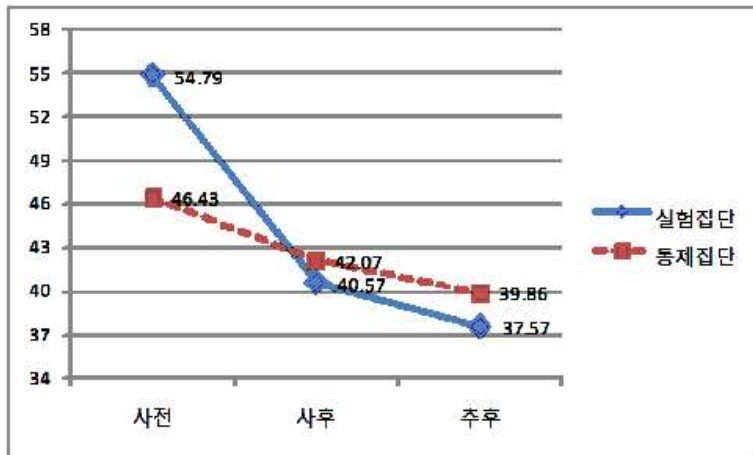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검사에 대해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Sidak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M_{사전}-M_{사후}=9.14$, $p=.002$),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M_{사후}-M_{추후}=1.00$, $p=.822$). 또한,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_{사전}-M_{추후}=10.14$, $p=.001$).

결과를 종합해보면, 프로그램은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 효과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 나타났으며 6주 후에도 그 효과는 지속되었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1의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셋째,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결혼 만족도 검사(K-MSI)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도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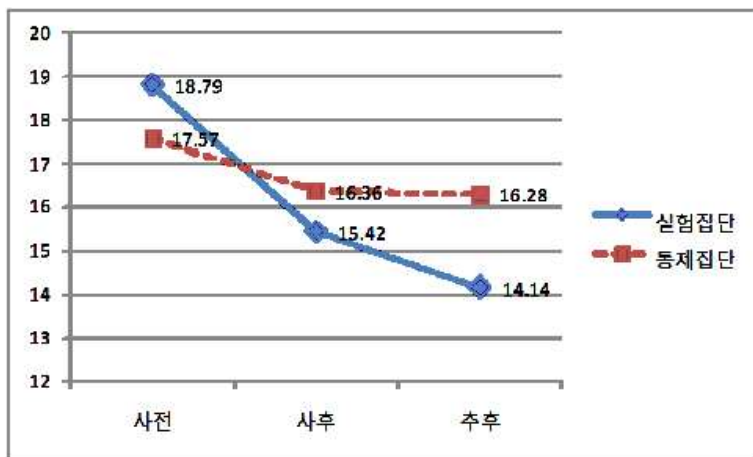


이들 자료에 대해 사전점수를 공변수,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독립변수, 그리고 사후점수를 종속변수로 공분산 분석한 결과,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조정평균의 차이가 없지만($F(1,25)=2.26$, $p=.145$), 추후점수를 종속변수로 공분산 분석한 결과 추후검사에서는 조정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25)=7.56$, $p=.011$). 이는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을 감소시키는데 프로그램의 효과가 추후검사에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4회기 때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한 실생활 적용에 있어서, 부부가 문제해결에 대한 계획과 평가의 반복과정에서 이를 습득하게 되어있다. 평가는 계획을 세운 후 최소한 1주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일정 시간의 소요가 필요하다. 따라서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에 있어서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뒤늦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1의 가설 1-3은 지지되었다.

넷째, 공격행동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결혼 만족도 검사(K-MSD)의 하위요인 중 공격행동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공격행동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공격행동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의 효과, 측정 시점의 효과,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혼합모형 분산분석 결과, 피험자간 요소인 프로그램 참여여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26)=.17, p=.677$). 그러나 피험자내 요소인 반복측정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F(2,52)=4.86, p=.012$). 반면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52)=1.45, p=.243$). Sidak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M_{사전}-M_{사후}=2.29, p=.125$),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M_{사후}-M_{추후}=.68, p=.827$). 그러나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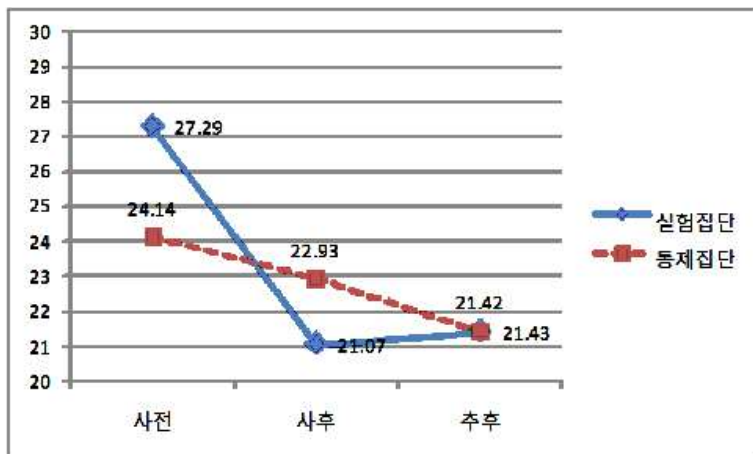
다($M_{\text{사전}} - M_{\text{추후}} = 1.03, p = .024$).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격행동에 있어서 반복측정의 주효과만 유의미하며 그 효과는 추후검사 시점에 명확히 나타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또한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와 반복측정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므로 반복측정의 주효과만으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단지 반복측정의 효과 혹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공격행동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1의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다섯째, 공유시간 갈등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결혼 만족도 검사(K-MSI)의 하위요인 중 공유시간 갈등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림 5>과 같다.

<그림 5> 공유시간 갈등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공유시간 갈등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의 효과, 측정 시점의 효과,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혼합모형 분산분석 결과,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F(2,52)=4.58, p=.015$). Sidak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M_{사전}-M_{사후}=3.71, p=.001$),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M_{사후}-M_{추후}=.57, p=.828$). 그리고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_{사전}-M_{추후}=.68, p=.000$).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유시간 갈등에 대해서 실험집단의 경우, 반복측정에 따라 통제집단 보다 크게 감소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사후검정의 결과에 의하면, 그 효과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 나타났다으며 6주 후에도 그 효과는 지속되었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공유시간 갈등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1의 가설 1-5는 지지되었다.

여섯째, 경제적 갈등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결혼 만족도 검사(K-MSD)의 하위요인 중 경제적 갈등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경제적 갈등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경제적 갈등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의 효과, 측정 시점의 효과,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혼합모형 분산분석 결과,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F(2,52)=4.57, p=.015$). Sidak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M_{사전}-M_{사후}=1.96, p=.087$),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M_{사후}-M_{추후}=1.50, p=.087$). 그러나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_{사전}-M_{추후}=3.46, p=.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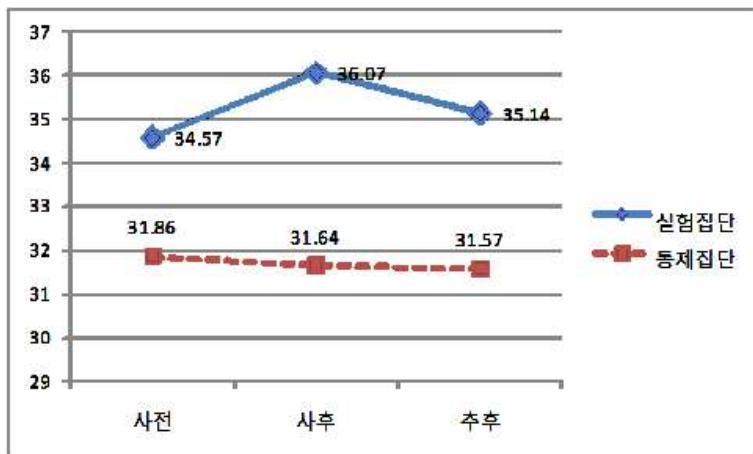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제적 갈등에 대해서 실험집단의 경우, 반복측정에 따라 통제집단 보다 크게 감소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갈등에 미치는 프로그램 효과가 프로그램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뚜렷하진 않았으나 프로그램 종료 후 6주가 지난 후에 사전검사와 추후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는 일정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일정 시간이 소요된 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의 경우와 유사하다. 경제적 갈등이라는 것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의 불만족을 의미하며 즉,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의 한 부분으로 보인다.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이 감소할 때 경제적 갈등의 효과는 비로소 그와 연계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이 추후검사에서 참여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므로 경제적 갈등 또한 추후검사에서 비로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경제적 갈등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1의 가설 1-6은 지지되었다.

일곱째,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결혼 만족도 검사(K-MSI)의 하위요인 중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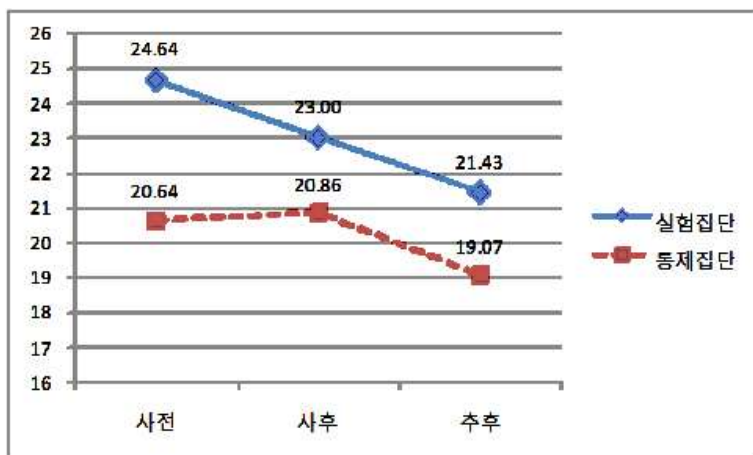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의 효과, 반복측정의 효과,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혼합모형 분산분석 결과, 피험자간 요소인 프로그램 참여여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F(1,26)=3.92, p=.058$). 피험자내 요소인 반복측정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F(2,52)=.37, p=.694$). 그리고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F(2,52)=.59, p=.556$). 따라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1의 가설 1-7는 기각되었다.

여덟째, 원가족 문제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결혼 만족도 검사(K-MSD)의 하위요인 중 원가족 문제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원가족 문제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원가족 문제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의 효과, 반복측정의 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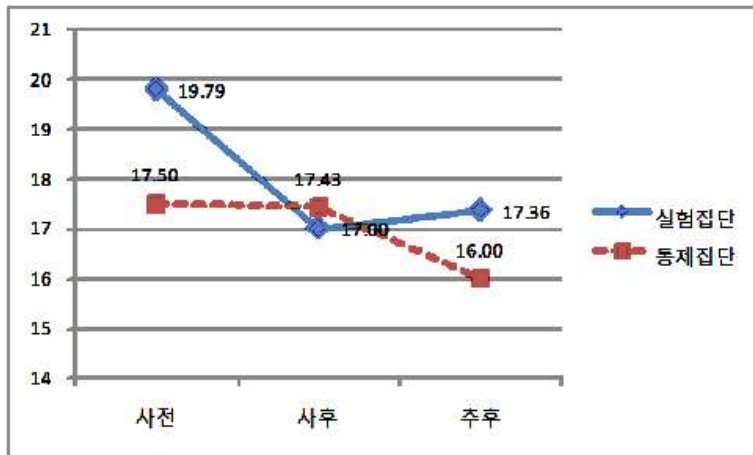
과,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혼합모형 분산분석 결과, 피험자간 요소인 프로그램 참여여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26)=1.41, p=.247$). 그러나 피험자내 요소인 반복측정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F(2,52)=13.37, p=.000$). 반면,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52)=2.29, p=.112$). Sidak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M_{사전}-M_{사후}=.71, p=.318$),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M_{사후}-M_{추후}=1.68, p=.001$),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_{사전}-M_{추후}=2.39, p=.001$).

결과를 종합해보면, 원가족 문제에 있어서 반복측정의 주효과만 유의미하며 그 효과는 추후검사 시점에 명확히 나타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또한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와 반복측정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므로 반복측정의 주효과만으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단지 반복측정의 효과 혹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원가족 문제가 감소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1의 가설 1-8은 기각되었다.

아홉째,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결혼 만족도 검사(K-MSI)의 하위요인 중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림 9>과 같다.

<그림 9>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의 효과, 반복 측정의 효과,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혼합모형 분산분석 결과, 피험자간 요소인 프로그램 참여여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26)=.19, p=.665$). 그러나 피험자내 요소인 반복측정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F(2,52)=3.97, p=.025$). 반면,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52)=1.83, p=.170$). Sidak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M_{사전}-M_{사후}=1.43, p=.200$),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M_{사후}-M_{추후}=.54, p=.840$). 그러나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_{사전}-M_{추후}=1.96, p=.025$).

결과를 종합해보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에 있어서 반복측정의 주효과만 유의미하며 그 효과는 추후검사 시점에 명확히 나타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또한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와 반복측정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므로

반복측정의 주효과만으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단지 반복측정의 효과 혹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1의 가설 1-9는 기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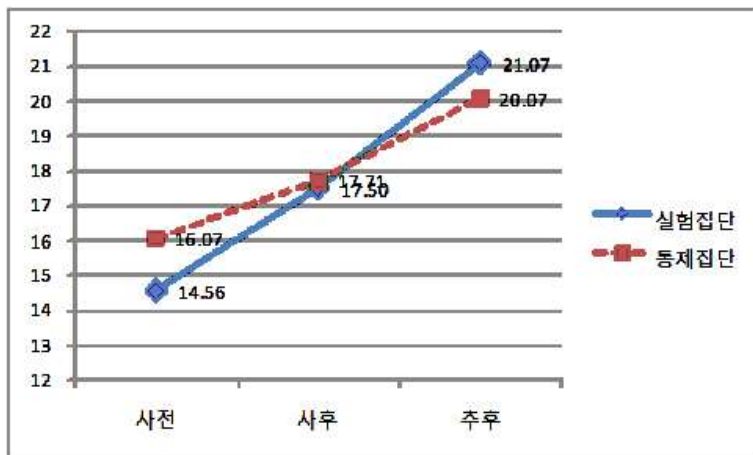
2) 의사소통 유형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이 부부들의 의사소통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의사소통 유형 척도 단축형(CPQ-SF)의 하위유형 중 동질성이 확보된 긍정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상호 요구/절회 의사소통의 긍정적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모형 분산분석(Mixed-design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난/방어 의사소통은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첫째,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의사소통 유형 척도 단축형(CPQ-SF)의 하위요인 중 기능적 의사소통인 긍정적 상호작용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림 10>와 같다.

<그림 10> 긍정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긍정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의 효과, 반복측정의 효과,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혼합모형 분산분석 결과, 피험자간 요소인 프로그램 참여여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26)=.04, p=.847$). 그러나 피험자내 요소인 반복측정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F(2,52)=17.73, p=.000$). 반면,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52)=1.14, p=.328$). Sidak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M_{사전}-M_{사후}=-2.39, p=.060$),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_{사후}-M_{추후}=-2.96, p=.006$). 그리고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_{사전}-M_{추후}=-5.36,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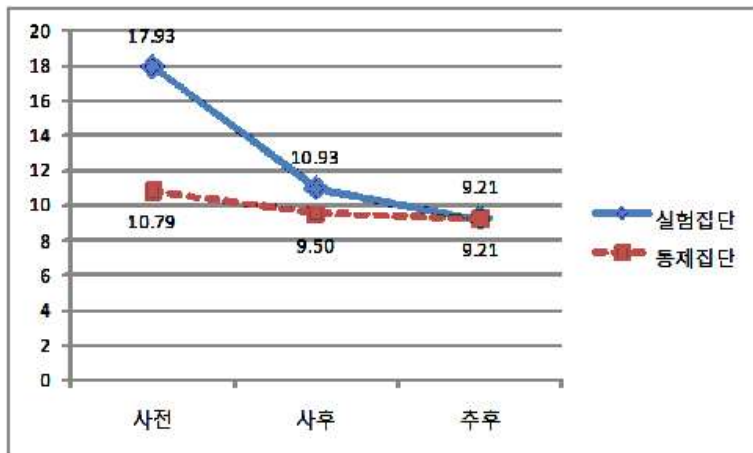
결과를 종합해보면, 긍정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반복측정의 주효과만 유의미하며 그 효과는 사후검사 시점에 명확히 나타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또한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와 반복측정 간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므로 반복측

정의 주효과만으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단지 반복측정의 효과 혹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긍정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유형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2의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둘째,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의사소통 유형 척도 단축형(CPQ-SF)의 하위요인 중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두 가지 하위요인은 비난/방어 의사소통과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이다. 두 요인 중 먼저, 비난/방어 의사소통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비난/방어 의사소통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비난/방어 의사소통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비난/방어 의사소통 사전점수를 공변수,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독립변수, 그리고 사후점수를 종속변수로 공분산 분석하였다. 실험집단은 반

복측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조정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1,25)=.39, p=.537$).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두 가지 하위요인 중 나머지 하나인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을 검증하였다.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의 효과, 측정 시점의 효과,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혼합모형 분산분석 결과,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F(2,52)=5.18, p=.009$). Sidak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M_{사전}-M_{사후}=3.25, p=.118$),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M_{사후}-M_{추후}=2.89, p=.224$). 그러나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_{사전}-M_{추후}=6.14, p=.001$).

결과를 종합해보면,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에 대해서 실험집단의 경우, 반복측정에 따라 통제집단 보다 크게 감소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따라서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 유형을 감소시키는데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사후검정의 결과에 의하면, 그 효과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뚜렷하진 않았으나 프로그램 종료 후 6주가 지난 후에 사전검사와 추후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는 일정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검토해볼 때, 실험에 참여한 부부들은 주관적으로 부부갈등을 보고하는 부부들이었고, 오랫동안 가장 부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소통 패턴은 단시간 내에 변화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두 가지 유형 중 비난/방어 의사소통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따른 차이가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실험집단의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참여여부와 반복측정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나 실험집단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2의 가설 2-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 성 만족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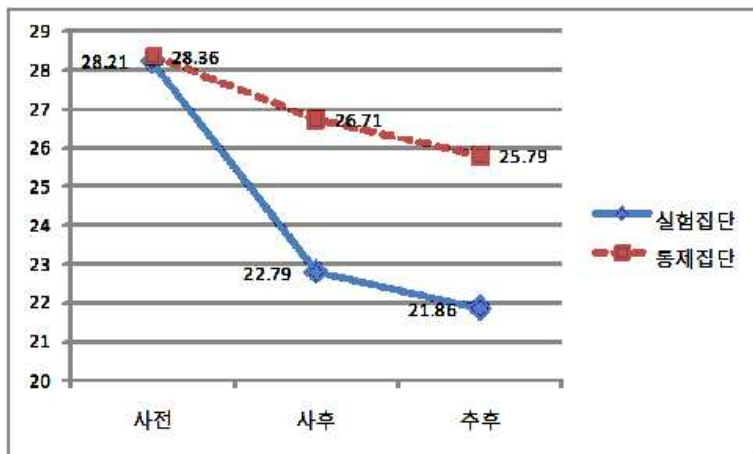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이 부부들의 성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성 만족도 척도와 결혼 만족도(K-MSI)의 하위척도 중 하나인 성적 불만족에 대해 혼합모형 분산분석(Mixed-design ANOVA)을 실시하였다.

첫째, 성적 불만족 척도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결혼 만족도 검사(K-MSI)의 하위척도 중 성적 불만족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림 13>와 같다.

<그림 13> 성적 불만족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결혼 만족도 검사(K-MSI)의 하위척도 중 성적 불만족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의 효과, 반복측정의 효과,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혼합모형 분산분석 결과, 피험자간 요소인 프로그램 참여여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F(1,26)=1.28, p=.269$) 피험자내 요소인 반복측정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F(2,52)=10.53, p=.000$). 그러나,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52)=2.27, p=.114$). Sidak 방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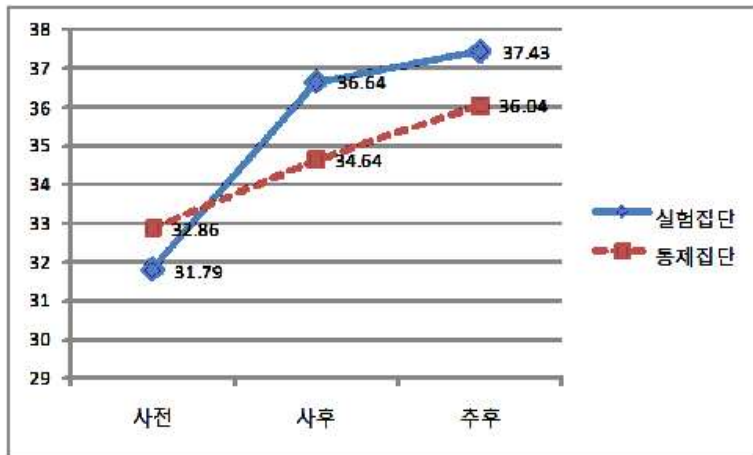
의한 사후검정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M_{사전}-M_{사후}=3.53$, $p=.011$),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M_{사후}-M_{추후}=.93$, $p=.502$). 그러나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_{사전}-M_{추후}=4.46$, $p=.003$).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적 불만족에 있어서 반복측정의 주효과만 유의미하며 그 효과는 사후검사 시점에 명확히 나타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또한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와 반복측정 간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므로 반복측정의 주효과만으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단지 반복측정의 효과 혹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성 만족도 척도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성 만족도 척도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림 14>과 같다.

<그림 14> 성 만족도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비교



성 만족도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의 효과, 반복측정의 효과,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혼합모형 분산분석 결과,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F(2,52)=4.12, p=.022$). Sidak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M_{사전}-M_{사후}=-2.57, p=.013$),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M_{사후}-M_{추후}=-1.29, p=.191$). 그러나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_{사전}-M_{추후}=-3.86, p=.002$).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부간 성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 성 만족 척도에 대해서 실험집단의 경우, 반복측정에 따라 통제집단 보다 크게 증가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따라서 성 만족을 증가시키는데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사후검정의 결과에 의하면, 그 효과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 나타났으며 6주 후에도 그 효과는 지속되었다.

성 만족도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효과 검증에 사용된 두 가지 척도 중 결혼 만족도 척도 (K-MSI)의 하위척도인 성적 불만족 척도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따른 차이가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실험 집단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 만족도 척도의 경우에는 참여여부와 반복측정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나 실험집단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성 만족도가 향상 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3의 가설 3-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V. 논의

1. 연구의 결과 논의

본 연구는 부부를 대상으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심리상담센터와 인터넷 등에 홍보문을 게시하여 두 차례에 걸쳐 부부들을 모집하였다. 특히 현재 부부가 갈등상황에 있다고 주관적으로 보고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연령과 결혼 년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집하였고, 모집된 부부들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 할당하여 배정되었으며 실험집단에는 6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 결혼 만족도 검사(K-MSI), 의사소통 유형 척도 단축형(CPQ-SF), 그리고 성 만족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 사후,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세 부분, 즉 결혼 만족도의 변화, 의사소통 유형의 변화, 그리고 성 만족도의 변화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각 부분별 결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성 의사소통 훈련을 적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공유시간 갈등과 경제적 갈등은 실험집단의 경우, 반복측정에 따라 통제집단 보다 크게 감소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 훈련을 적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

은 전반적 결혼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공유시간 갈등, 그리고 경제적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미네소타 부부대화법 훈련이 전반적 결혼 불만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최규련(1997)과 이현숙(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과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이현숙(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공유시간 갈등과 경제적 갈등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난 점은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전반적 결혼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그리고 공유시간 갈등의 경우 프로그램 효과는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프로그램 종료 후 6주 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과 경제적 갈등의 경우 프로그램 효과는 프로그램이 종료 되는 시점에서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6주 후에 명확한 효과가 나타났다.

전반적 결혼 불만족이 감소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반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다른 부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부관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결혼 생활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간 의사소통의 개선을 위해 남편과 부인이 함께 노력하면서 전반적 결혼 불만족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과 결혼 만족도와 관련 있다는 수많은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강혜숙, 김영희, 2008; 정은, 2004; 정문자 등, 2010; 권윤아, 김득성, 2011).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이 감소했다는 것은, 배우자에게 느끼는 애정이나 정서적인 친밀성이 증가하고, 감정표현, 정서적지지, 감정적인 이해, 그리고 상호개방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말하는 방법으로 감각정보, 사고, 감정, 소망, 행동을 나누어 말하게 훈련

하는데, 이중에서 특히 사고와 감정을 연결시켜 말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감정을 전달하고 오해를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부에게 있어서 정서 조절, 정서 반응, 정서적 소통이 결혼생활을 긍정적으로 성숙시킬 것인지 아니면 결혼생활을 파국으로 이끌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기존 연구들이 역설하고 있다(Gottman & Notarius, 2000; Greenberg, 2002; Atkinson 등, 2005).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이 감소했다는 것은, 부부간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감소하고, 문제해결의 기술이 향상되며,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불일치의 감소와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의논을 하고자 할 때 과민반응이 감소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는 4회기 한 회 동안 ‘문제 그리기’라는 주제로 부부의 문제를 부부가 협동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훈련한다.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화된 과정과 틀을 제공하고, 이전 회기에서 습득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를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부부들의 문제해결 기술이 결혼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밝혀왔다(이창숙, 유영주, 1998; 김아신, 2009; 이정은, 이영호, 2000; Birchler & Webb, 1977).

공유시간 갈등이 감소했다는 것은, 배우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정도가 증가하고 공유하는 여가활동이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1회기에 ‘협동적 결혼의 6가지 차원’에서 소소한 삶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것을 강조하고 이를 과제로서 실천하게 한다. 프로그램 내에서의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전반적 의사소통 방식의 개선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요인이며 결혼 만족 증가가 공유시간 증가와 갈등감소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갈등이 감소했다는 것은, 가계관리와 관련된 부부간의 일치도가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즉, 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나 배우자의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부족 등이 개선된 것이다. 경제적 갈등 또한 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해결 방식의 긍정적 변화로 개선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 그리기’ 방식에 의해 진행될 때 부부의 경제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혼 만족도 척도(K-MSI)의 하위요인 중 공격행동, 원가족 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문제에서는 반복측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본 프로그램은 부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대인간 변인인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개인내적 변인인 비판습적 성역할 태도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또한 환경적 변인인 원가족 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문제 등은 다른 변인들에 비해 고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단기간의 집단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원가족 문제와 배우자 가족과의 문제를 다루는 구성요소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의사소통 유형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경우에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은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 반복측정에 따라 통제집단 보다 크게 감소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그러나 비난/방어 의사소통 유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가 부분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 유형 중 상호/요구 철회 유형이 장기적으로 결혼 만족도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이 반복되고 있어(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 임승락, 권정혜, 1998) 본 프로그램은 가장 심각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유형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은 상대방이 의논을 요구하거나 변화를 추구하려는 대화를 시도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대화를 끝내려하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하거나 혹은 자리를 떠나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난/방어 의사소통에 있어서 실험집단은 반복측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통제집단의 점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는 배우자가 비난하고 비난을 받은 상대방 배우자는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변명하는 행동들은 크게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해보면, 본 프로그램을 통해 비난, 요구 혹은 의논이던지 최소한, 대화의 장면에 머물게 하며 이를 회피하는 행동만큼은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성 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성 만족 척도는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 반복측정에 따라 통제집단 보다 크게 증가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 만족도(K-MSI)의 하위척도인 성적 불만족 척도의 경우, 실험집단은 반복측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참여여부와 반복측정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은 성 만족에 미치는 효과가 부분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성 만족 척도와 성적 불만족 척도 간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r=.709$, $n=28$, $p=.000$), 성 만족 척도와 성적 불만족 척도는 서로 매우 유사한 것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성 만족도 척도는 성적 불만족 척도보다 ‘나’의 입장에서 관

단하고 느끼는 개념이 더 크고, 반면에 성적 불만족 척도는 ‘나’의 입장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지, 혹은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적 불만족 척도는 나의 일차적인 성적 욕구의 충족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와의 관계, 즉 부부가 함께 느끼는 성 만족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결혼 만족도 척도(K-MSI)의 성적 불만족 척도로 성 만족의 효과가 검증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프로그램 내에서 성을 다루는 시간과 깊이가 더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을 인터넷을 통한 모집을 하였다. 그 이유는 국내 기존의 부부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른 집단 프로그램 연구들과는 다르게 대다수의 연구에서 특정 종교(기독교) 단체에서 참여자를 모집하였거나 기독교 목회자가 대다수 포함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이현숙, 1998; 김희진, 2004; 권정혜, 채규만, 2000; 김규식, 김성희, 2001; 유양옥, 2005; 권수정, 2007; 박남숙, 2000; 송정아, 2006).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 방법은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심리상담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를 이용하여 모집을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 모집된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인터넷 접근이 용이한 30~40대의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결혼 년 수가 짧고, 비교적 학력이 높으며, 컴퓨터를 자주 활용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의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을 통한 연구 참여자 모집은 표집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도 완전한 대안 일 수 없다. 그 외에 다른 오프라인에서의 적절한 모집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를 무선적으로 각 집단에 할당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쌍의 부부 단위로 할당하게 되고, 본 연구와 같은 소규모의 참여자일 경우 우연에 의해 발생할 비동질적 집단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물론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통계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총 14개의 척도 중 4개 척도만 동질성이 확보가 확보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특이한 사항은,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척도들에서 통제집단은 실험집단보다 사전검사 점수에서 작은 점수 차이라 할지라도 모두 긍정적 방향으로 점수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근본적으로 다른 집단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 수를 늘리거나 실험 참가를 희망하는 부부들을 갈등정도에 따라서 짝지어(matching) 할당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집단에서 반복측정만으로도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설문지를 반복적으로 응답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효과는 실험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났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검사에 대해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one-way ANOVA)한 결과, 결혼 만족도 검사의 하위척도 중에서는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F(1,25)=3.91, p<.05$),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F(1,25)=156.50, p<.000$), 원가족 문제($F(1,25)=13.31, p<.01$), 그리고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유형($F(1,25)=4.94, p<.05$)에서 반복측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통제집단에 속해 있던 한 연구 참여 부부는 설문지를 작성할 때마다 설문지의 문항들에 답을 하기 위해 본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설문지를 반복적으로 작성하면서 스스로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는 주관적 보고를 한 바 있다. 비록 단일 사례의 주관적 보고만으로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과정 혹은 영향은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부부관계에 대한 세밀한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부부관계와 배우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의 수준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세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결혼 만족도 검사(K-MSI)와 의사소통 유형 척도 단축형(CPQ-SF)은 설문지 작성만으로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알아차림을 증가시키는데 일부 사용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이 문항들을 치료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한편, 무처치 통제집단이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을 경우 통계적 처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혼합모형 분산분석의 경우, 통제집단이 반복측정에 있어서 실험집단이 변화하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가 있다면 반복측정의 주효과는 유의해질 가능성이 높고 참여여부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해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어느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이든 반복측정의 주효과만

으로 프로그램이 효과 있었다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복측정과 참여여부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복측정의 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 검증 도구를 사용해야만 진정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는 요구특성(demand characteristics)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험집단에 할당된 사람들의 경우, 무료로 6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혜택을 얻게 된다. 실험 참가자들은 이것이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연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연구자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후, 추후 검사에서는 순수한 프로그램의 효과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고자 하는 것의 영향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를 계획한다면, 실험집단과 무처치 통제집단의 실험설계 보다는 검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다른 처치를 하는 비교집단을 추가시켜 실험설계를 해야 요구특성을 보다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와 다른 보다 합리적 실험설계 방법의 개발과 대안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혜숙, 김영희 (2008).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08. 16(1). 135-156.
- 고정애 (2004). 기혼여성의 성 만족 및 일반적 의사소통과 성 관련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공선숙 (2004). Gott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 증진 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2(2), 141-171.
- 권수정 (2007). ENRICH를 활용한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247-275.
- 권정혜, 채규만 (1999a).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 18(1), 123-139.
- 권정혜, 채규만 (1999b).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타당화 연구 II : 이혼상담집단과 자녀상담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8(2), 139-150.
- 권정혜, 채규만 (2000). 부부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9(2), 207-218.
- 김갑숙 (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규식, 김성희 (2001). 인지행동적 부부훈련이 부부문제 감소와 부부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2(1), 45-60.
- 김수연, 김득성 (1993). 부부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과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 김순옥 (1991). 10대 자녀의 의사소통개방성에 대한 부모변인의 예측력. 가족학논집, 3, 69-97.
- 김순옥 (2001). 부부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37-157.
- 김연, 유영주 (2002). 기혼 남녀의 성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1-18.
- 김영기, 한성열, 한민 (2011).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 성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7(2), 199-218.
- 김영자 (1992). 도시 지역 주민이 경험한 부부간의 갈등요인, 갈등정도, 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요완 (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성 지식 수준의 성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경 (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형성기 가정과 학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1996). 노년기 부부관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 (2011). Satir 부부관계 향상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2), 19-40.
- 김진숙, 권석만 (2010). 부부갈등 사례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337-348.
- 김혜경(1996). 노년기 부부관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화자 (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국민학교,중·고등,대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현 (1996). **성생활 만족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도시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진 (2004).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진 (2004).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 연구, 5(3), 839-853.
- 문정화 (2011). **결혼초기 부부문제에 대한 통합적 가족치료 사례개념화 모형 개발 연구: Bowen의 가족체계이론과 MRI의 의사소통 모델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혜숙, 이정덕 (1994). **부부적응과 성적적응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창간호, 51-74
- 박남숙 (2000).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남숙, 연문희 (2002). **부부성장 집단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3(2), 337-365.
- 박선미(1987). **부부간의 만족요인에 대한 고찰**.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주, 박재황 (2008). **문제해결 단기상담 프로그램이 이혼위기 부부의 문제해결능력, 결혼불만족도 및 실제 히론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4), 1819-1834.
- 박태영(1998). **가족치료이론의 적용과 실천**. 서울; 학지사.
- 서선미 (2004). **Gottman의 부부치료 원리를 활용한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선영 (2002). **결혼초기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사랑과 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말희, 이정우(1986).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33-47.
- 송성자 (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9, 49-75.
- 송정아 (2006). 이마고 부부치료 모델 내용의 타당성과 적용 효과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87-99.
- 양희란 (1993). 임신부인의 성생활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경희 (1997). 의사소통양식, 의사소통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권 4호. 201-220.
- 오윤자 (1992).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부부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209-229.
- 유 옥 (2010) 결혼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한 신혼지 부부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양옥 (2005). 교회 내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의 효율성 연구.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가현 (1990). 성 심리학. 서울: 성원사.
- 윤성숙 (1996).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 결정 참여도에 따른 결혼 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근후 (1996). 가족해체와 부부간 성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학술대회.
- 이기복 (2006).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용 프로그램.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숙 (1988).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67-187.

- 이동원 (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미명, 박혜인 (1995). **전화 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문제와 대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1), 141-154.
- 이민식 (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신영 (1984). **결혼초기의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 (2000). **혼외관계의 이해**. 학지사.
- 이영실 (1989). **도시 부인의 부부갈등 제요인과 성생활 불만족의 정도**, 송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윤수 (1998). **한국여성의 성의식 및 성 실태**. 한국성의학연구소.
- 이인수, 유영주 (1986). **결혼 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4, 1-14.
- 이정덕 등 (2000).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정순 (1982).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일치도와 이해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미 (2001). **30-40대 부부의 관계향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지은 (2008). **부부문제에 초점을 맞춘 온마음 집단프로그램 개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창만 (1992).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만족과 부부적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숙 (1996). **도시 부부들의 사회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결혼 5년 미만의 부부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01-214.

- 이창숙, 유영주 (1998). **부부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Baucom과 Epstein의 인지-행동적 치료모델에 기초하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46-71.
- 이현숙 (1998). **인지행동적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홍식 (1989). **완전한 부부; 전문의가 쓴 알기 쉽고 완벽한 성의학 백과**, 서울: 오늘.
- 이화자, 김순옥 (2010). **경험적 부부집단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Satir성장모델과 비폭력대화(NVC)모델의 통합**. 상담학연구, 11(2), 831-854.
- 이화자, 최연실 (2010). **사티어 성장모델과 비폭력 대화모델에 기반한 부부집단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1), 131-156.
- 임승락 (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 만족: 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승락, 권정혜 (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 만족: 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98 연차학술발표논문집. 109-123.
- 장순복 (1989). **자궁절제술 부인의 성 생활 만족에 관한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순복, 강희선, 김숙남 (1998). **기혼여성의 성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8(1). 201-209.
- 정문자, 전영주, 김수지, 정수빈 (2010).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갈등 주제, 역기능적 상호작용 유형 및 조망수용**. 상담학 연구.

11(3), 1305-1324.

정은 (2004). **도시 기혼여성의 부부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2(2), 173-199.

정은미 등(1996).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감정적 노출유형과 결혼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 191-204.

조유리 (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지혜정 (2002).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의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규만, 최규련 (1996). **부부대화법 지도자 지침서**. 하우출판사.

최규련 (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최규련 (1997).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의 한국에서의 적용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141-166.

최신덕 (1991). **결혼과 가족관계**. 서울: 기린원.

최형기, 이용희 (1999). **오르가즘 장애**. 대한의사협회지, 42(2), 177-178.

통계청 (2009). **2009년 기혼여성의 이혼관련 의식 통계**.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학술보고서 (1994). **한국도시가족의 부부문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 77-88.

홍성목 (1999). **아름다운 사랑과 성**. 서울: 학지사.

홍숙선 (200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 관계 및 자율지향성과 성만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원표 (1993). **도시맛벌이 부부의 갈등관리: 부산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은희, 신예리, 김정수, 신용호 (1998).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더 모르는 가족이야기**. 황금가지.
- Adams, B. N. (1980). *The Family*.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Anthony P. Atkinson, Jason Tipples, D. Michael Burt & Andrew W. Young (2005) *Asymmetric interference between sex and emotion in face perception*, 67(7), 1199-1213,
- Balswick, J. K. & Balswick, J. O. (1997). *Families in pain: Working through the hurts*. US/Mountain.
- Baughman, Donald A. (1982) *The effect of self-esteem, relationship satisfaction, conceptual complexity and present relationship communication patterns on the learning of communication skills: A field stud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2(9-A), 3910-3911.
- Beach, F. A. (1977). *Human sexuality in four perspectiv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ell, R. B. & Bell, P. L. (1972). *Sexu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Medical Aspects of Human Sexuality*. 6. 136-144.
- Berardo, F. M. (1990). *Family research in the 1980s: Recent trend and future directions*. In A. Booth ed.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NCFR, 457-463.
- Birchler, Gary R.; Webb, Linda J. (1977) *Discriminating interaction behaviors in happy and unhappy marriages*. Journal of

-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3), 494-495.
- Blumstein, P., & Schwartz, P. (1983). *American skills differentiating more satisfying from less satisfying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 540.
- Brentton, M., 이민섭 역 (1994). **성 커뮤니케이션 소프트**. 서울 : 한이름.
- Brommel, B. J. & Galvin, K. M. 이재연, 최영희 역 (1996).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서울 : 형설출판사
- Burgess, E W & Wallin P. (1953). *Engagement and marriage*. Chicago : J. B. Lippincott.
- Burgess, E. W., Cottrell Jr., & L. S.(1935) *Predicting success or failure in marriage*. Oxford, England: Prentice-Hall. (1939). xxiii 472 pp.
- Burgess, E. W.; Locke, H. J. (1945)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Oxford, England: American Book Co. (1945). xvi 800 pp.
- Burnham, R. A. (1984). *The effects of the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on the marital and family communication of high and low socioeconomic status coupl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1984).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5, 1006B-1007B.
- Busick, C. A. (1982).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training on marital communication, marital satisfaction and self-concept*. (Doctoral Dissertation, Texas A & M University, 1982).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3, 725A.

-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Christensen, A., Eldridge, K., Catta-Pretta, A. B., Lim, V. R., & Santagata, R. (2006). *Cross-cultural consistency of the demand/withdraw interaction pattern in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1029-1044.
- Christensens, A., & Heavey, C. L. (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3-81.
- Christensens, A., & Heavey, C. L. (1993). *Gender difference in marital conflict: The demand/withdraw interaction pattern*. In S. Oskamp & M. Costanzo (Eds.), *Gender issues in contemporary society* (pp. 113-141). Newbury Park, CA: SAGE.
- Christensens, A., & Shenk, J. L. (1991). *Communicat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nondistressed, clinic, and divorcing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458-463.
- Cox, F. D. (1990). *Human intimacy, marriage, the family its meaning*. 5th ed., St. Paul, N.Y. San Francisco: West Pub. Comp.
- Derogatis, L. R. (1980). *Psychological assessment of psychosexual functioning*.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1),

113-131.

Donnelly, D. (1993). *Sexually inactive marriage*. Journal of Sex Research. 30. 171-179.

Doss, B. D., Thum, Y. M., Atkins, D. C., & Christensen, A.(2005). *Improving relationship: Mechanism of change in couple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 624-633.

Frank(1986). D. L., Downard, E., & Lang, A. R. (1986). *Androgyny, sexuality and women*. Journal of Psychological Nursing Mental Health Service. 24(7). 10-17

Futris, Campbell, Nielsen, & Burwell (2010). *The 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Short Form: A Review and Aseessment*.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 and Families, 18(3), 275-287.

Gable, S., Reis, H., Impett, E., & Asher, E. (2004). *What do you do when things go right? The intrpersonal and interpersonal benefits of sharing positiv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228-245.

Glander, M. H. (1985). *A case study approach to the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at Raleigh, 1984).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6, 613A.

Goldenberg, I. & Goldenberg, H. (1991). *Family therapy: An overview*(3rd ed.). Brooks/Cole.

Gotlib, I. H. & Hammen, C. L. (1992). *Psychological aspect of*

- depression: Towards a 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 Gottman, J. M. (1979). *Marital interaction: Experimental investigations*, Academic Press (New York).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Erlbaum.
- Gottman, J. M. & Notarius, C. I. (2000). *Decade review: Observing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27-947.
- Gottman & DeClaire: 정준희 옮김 (2006). *부부를 위한 사랑의 기술.*
해냄
- Greenberg, Leslie S. (2002). *Integrating an emotion-focused approach to treatment into psychotherapy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12(2), 154-189.
- Gurman, A. S. & Kniskern, D. P. (1981).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 /Mazel.
- H. S. Feldman (1971). *Treating emotional illness arising in marital discord.* Psychosomatics, 12(2), 123-126.
- H. S. Kaplan : 이근후, 성금영, 박영숙 공역(1990). *새로운 성치료: 성 기능 장애의 적극적 치료법.*
- Hawkins, James L.(1968). *Associations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4), 647-650.
- Heavey, C., Layne, C., & Chirstensesn, A. (1993). *Gender and*

- conflict structure in marriage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Hite, A. L. (1976). *Some characteristics of work rol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self-esteem and depression.*
- Hoffman, Martin L.(1977).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84(4), 712-722.
- Hunt, M. (1974). *Sexual behavior in the 1970s.* Chicago: Playboy Press.
- Hite, A. L. (1976). *Some characteristics of work rol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self-esteem and depression.*
- Jacobson, N. (1989). *The politics of intimacy.* Behavior Therapist, 12, 29-32.
- Jacobson, N. & Magolin, G. (1979).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James L. Hawkins, Carol Weisberg and Dixie W. Ray(1980) *Spous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2(3), 158-193.
- Kimes, L. A (2001). *"Was it good for you too?": An exploration of sexual satisfaction.* University of Kansas.
- Kirchler, E. (1989). *Marital happiness and interaction in everyday surrounding: A time-sample diary approach for coup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5, 375-382.
- Knudson, R. M., Sommers, A. A., Golding, S. L. (1980).

-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mode of resolution in marit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8(5), 751-763.
- Landis, P. H. (1975). *Making the most of marriage.* New jersey: Prentice-Hall
- Leigh, B. C. (1989). *Reasons for having and avoiding sex.* Journal of Sex Research, Vol. 26.
- Levin, S. B. (1976). *Marital Sexual Dysfunction: Inventory Concepts.* Ann Intern Med. 83. 448-453
- Lewin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The Free Press.
- Markman, H. H., Renick, M. J., Floyd, F. J., Stanley, S. M. & Clements, M. (1993). *Preventing marital distress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training: A 4 and 5 year follow-up.*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61, 70-77.
- Marokoff, P., & Gilliland, R. (1997). *Stress, Sexual Functioning,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Research. 30. 43-53.
- Masters, W. H. & Johnson, V. E. & Kolodny, R. C. (1985). *Human Sexuality*(2nd ed), Boston: Little Brown.
- Masters, W. H. & Johnson, V. E. (1970). *Human sexual respons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McDowell, J. (1984) : *"Heterosexuality is the only natural form of sexual expression"*, In H, Feldman and A. Parrot (eds).

- Human sexuality, Sage Publishers. Inc.
- Miller, S., Nunnally, E., & Wackman, D. B.(1975). *Alive and aware Minneapolis* :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rogram. Inc.
- Miller, S. L., Nunnally, E. W., & Wackman, D. B. (1976).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couples. Social Casework, 57, 9-18.
- Miller, S., Miller, P., Nunnally, E. W. & Wackman, D. B. (1994)
Couple Communication: Talking and listening togethe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rogram, Inc.
- Nicholes, W. C. (1988). *Marital Therapy: An Integrative Approach*. The Guilford Press.
- Noller, P. & Fitzpatrick, M. A. (1990).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41-151.
- Noller, P. (1984). *Nonverbal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eraction*. New York: Perganmon Press.
- Peggy J. Kleinplatz (2001). *New Direction in Sex Therapy: Innovations and Alternatives*. Psychology Press.
- Peterson, D, R. (1983) *Conflict*. In H. H. Kelley, E. Bersheild, A. Chriestensen, J. H. Harvey, T. L. Huston, G. Levinger, D. R. Peterson(Eds.), Close relationships (pp. 360-396). New York, NY: W. H. Freeman.
- Piercy, F. P. & Sprenkle, D. H. (1990). *1980s' Marriage and family therapy: A decade review*. In A. Booth ed.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NCFR, 446-454.
- Piercy, S. C. & Lobsenz, N. M. (1994). *Stop marital fight before*

- they start.* Berkley.
- Putton, D. & Warring, E. M. (1985). *Sex and marital therapy.* 11(3). 176-184.
- Rice, A. E. (1984). *Sexual Interaction.* Washington D.C : Health and Company.
- Roach, A. J., Franzier, L. P. & Br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Roberts, L. J. (2000). *Fire and ice in marital communication: Hostile and distancing behaviors as predictors of marit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693-707.
- Rubin, I. (1965). *Sexual life after sixty.* New York: Basic books Inc.
- Russell, C. S., Bagarozzi, D. A., Atilano, R. B., & Morris, J. E. (1984). *A comparison of two approaches to marital enrichment and conjugal skills training: 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and structured behavioral exchange contracting.*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2, 13-15.
- Sabatelli, Ronald M., Buck, Ross, Dreyer, & Albert(1982) *Nonverbal communication accuracy in married couples: Relationship with marital complai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5), 1088-1097.
- Sade, J. E. & Notarius, C. I. (1985). *Emotion expression in marital and family relationship.* In L. L'Abate(Eds), The handbook of

-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p378-404), IL: The Dorsey Press.
- Schaap, Cas, Buunk, Bram, Kerkstra, Ada (1988). *Marital conflict resolution*. Noller, Patricia (Ed); Fitzpatrick, Mary Anne (Ed), (1988).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No. 1., (pp. 203-244). Cleved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x, 406 pp.
- Scoresby, A. L. (1977). *The marriage dialogue*. Reading, MA: Addison-Wesley.
- S. D. Conrad & M. A. Milburn (2001). *Sexual Intelligence*. Crown, New York.
- Sheila Macneil, E. Sandra Byers(1997).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Problems,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Vol. 6.
- Siberbogen, A. K. (2003). *Gender role adoption and women's sexual satisfaction*. University of Missouri-Saint Louis.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tewart, Abigail J.; Rubin, Zick(1976). *The power motive in the dating cou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2), 305-309.
- Strong, B. & Devault, C. (1994). *Human Sexuality*.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Stuart, R. B. (1980). *Helping couples change*. The Guilford Press.

- Synder D. K. (1979).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Talmadge, W. C. (1985a). *Introduction to sexuality*. In L. L'Abate(Eds),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p431-434), IL: The Dorsey Press.
- Trost, J. A. (1985). *The influence of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distressed couples*. (Doctoral dissertation, The Professional School for Psychological Studies, San Diego, CA 1985).
- Waring, E. M., & Chelune, G. J. (1983), *Marital intimacy and self-disclosu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183-190.
- Whalom, R. E. (1977). *Brain mechanisms controlling sexual behavio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Wince, J. P. & Carey, M. P. (1991). *Sexual Dysfunction: A Guide for Assessment and Treatment*. The Guilford Press.
- Witkin, S. L., Edleson, J. L., Rose, D., & Hall, J. A. (1983). *Group training in marital communication: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661-669.

ABSTRACT

The effects of Couple and Sexual training Communication Programs on the Marital and Sexual Satisfaction

Yeon Woo-Seo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Program-based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in combination with Sexual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marital and sexual satisfaction for the distressed couples.

The twenty couples for this study were recruited twice from the internet web sites that introduced and explained the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The 19 couple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but three couples from experimental group and two couples from control group dropped

out during the training program because of unknown personal reasons.

The program was run by the trained clinicians once a week for six week period. The length of each session was 150 minutes. Pre-post test scales were Korean-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 The 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Short Form (CPQ-SF), and The Sexual Satisfaction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PASW Statistics 18.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among the K-MSI sub-scales there we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of Global Distress, Affective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Time together, and Disagreement About Finances for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is improvement lasted for the next six-week period after termination of the programs.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on Aggression, Role Orientation, Family History Of Distress, and Conflict With In-Laws sub scales for the experimental conditions. Seco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for the alternate demanding /withdrawal communication pattern sub-scales o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 of CPQ-SF for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control group. However, the effect on the criticism/defensive communication pattern of experimental group was not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control group. The 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 of CPQ-SF did not show significant improved for the experimental group.

Thir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of The Sexual Satisfaction for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control group. This effects was maintained for following six weeks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program.

In conclusion, the study demonstrated that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in combination with Sexual Training Communication Program can be helpful for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beneficial for distressed couples.

key words: marital satisfaction, sexual training program, problem solving

부 록

- 부록 1. 회기별 프로그램 소개
- 부록 2. 한국형 결혼만족도 검사 (K-MSI)
- 부록 3. 의사소통 유형 척도 단축형 (CPQ-SF)
- 부록 4. 성 만족도 척도

부록 1 : 회기별 프로그램 소개

1 회기		
주제	대화 스타일	
목표	1. 자신의 대화 스타일에 대한 자각	
검사	사전검사(K-MSI, CPQ-SF, 성 만족도 척도)	30분
설명	집단의 규칙	30분
	본 프로그램의 목표	
	협동적 결혼이란?	
	협동적 결혼의 6가지 차원 (헌신, 배려, 대화기술, 문제는 협동으로, 소소한 삶의 즐거움, 사회공헌)	
실습1	당신과 배우자를 배려하기 (단위: 부부) 1) 당신 자신을 위한 배려 2) 배우자를 위한 배려 작성 후 두 쌍의 부부가 나눔	15분
	휴식	10분
설명	대화스타일 1-A 일상 생활 말하기 1-B 일중심 말하기 2-A 통제식 말하기 2-B 다툼식 말하기 2-C 양심품고 말하기 3 탐색적 말하기 4 자각적 말하기 각 스타일에 대한 예시문, 관련 동영상, 영향	35분
	실습2	자신과 배우자의 대화 스타일 (단위: 부부) 1) 나의 대화 스타일을 %로 표현하기 (스티커 10장 배부 1장=10%) 2) 배우자의 대화 스타일을 %로 표현 (스티커 10장 배부 1장=10%) 자신의 평정과 배우자의 평정에서의 차이를 나눔

정리	1회기의 내용을 요약, 정리	5분
과제	1) 자신의 스타일에 대해서 평정과 자각 2) 자신과 배우자 배려를 위한 쿠폰 제작과 실행	

2 회기

주제	말하기 구조화	
목표	1. 문제 확인하기 2. 자각의 수레바퀴 이해와 습득	
복습	배려 : 자신을 배려하지 않기/ 배려하기 &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기/ 배려하기 대화스타일	10분
실습1	지난 한 주간 어떤 스타일로 사셨나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생각, 어떤 대화스타일,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토론 (단위 : 2쌍 부부)	15분
설명	문제들 주제적 / 개인적 / 관계적 문제의 분류와 예시 관계적 문제로 진행될 문제들	15분
실습2	현재, 우리 부부가 가진 문제는? 주제적 / 개인적 / 관계적 (단위 : 부부)	15분
설명	문제해결에 작용하는 제 3의 힘 : 과정 자각의 수레바퀴 1) 감각정보 2) 사고 3) 감정 4) 소망 (자신, 배우자, 우리를 위한) 5) 행동 (과거, 현재, 미래) 사고와 감정의 구분 감정으로 착각하기 쉬운 사고들 감정의 예시	30분
휴식		10분
실습3	교재의 수레바퀴 문제 풀기 (단위 : 개인)	5분
확인	예제문 함께 맞춰보기	5분
실습4	예제문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남편’의 각 문장별 영역 찾기 (단위 : 부부)	5분
확인	예제문 함께 맞춰보기	5분

시범	자각의 수레바퀴로 말하기 시범 (진행자)	5분
코칭	1쌍의 부부가 직접 나와서 실습하고 진행자는 이를 코칭	10분
실습5	각자 문제를 하나씩 선택하여 수레바퀴 매트에서 실습 1) 1쌍은 실습하고 나머지 1쌍은 이를 보며 코칭 2) 다시 바꾸어서 실습하던 부부는 코칭을 하고 코칭하던 부부는 실습	20분
설명	왜 이렇게 낯설고 복잡하게 말해야 하는가? 감정과 무엇이 옳고 그른가? 사건과 감정 사이에 사고가 개입하는 과정.	10분
실습6	난 무엇을 보았는가? (달리의 그림을 스치는 듯 보여주고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	3분
설명	감각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의 ‘사고의 틀’ 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만 하는가?	15분
실습7	실제 부부싸움 동영상 (A) 시청	20분
	부부의 부부싸움 과정을 단계를 나누어 각 부부에게 할당하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자각의 수레바퀴를 이용한 말하기 할 것인가를 논의 후 발표	
정리	2 회기의 내용을 요약, 정리	5분
과제	자각의 수레바퀴로 문제 두 가지에 대해 실습하고 이를 배포된 과제양식에 기록해 오기	

3 회기

주제	듣기 구조화	
목표	1. 듣기 스타일에 대한 자각 2. 듣기 주기에 대한 이해와 습득	
복습	수레바퀴에 문제를 반영하기	10분
	부부싸움에 대한 동영상(B)을 시청	
실습1	동영상 속 상황에서 자각의 수레바퀴와 더불어 말하기 스타일에 대한 적용하여 대안 구상하기 (부부) 발표	10분
실습2	지난 한주 동안 어떤 것을 노력하셨나요? (두 쌍 부부) 어떤 스타일, 자각의 수레바퀴에 대한 적용 노력,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10분
설명	듣기 스타일 1) 습관적 듣기 2-1) 평가적 듣기 2-3) 대응적 듣기 3) 탐색적 듣기 각 스타일에 대한 예시, 동영상, 영향	20분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	
	말하는 사람의 자각의 수레바퀴 빠진 영역 찾기	
실습3	자각의 수레바퀴 영역에 따라 개방 질문하기 (단위 : 부부) 어떤 주제를 선택하여 한 사람은 말을 하고 배우자는 수레바퀴의 그림판 위에 말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수레바퀴의 영역에 표시를 하면서 듣는다. 수레바퀴의 영역 중에서 표시가 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답한다. 만약 질문한 영역과 다른 영역으로 답을 할 경우 이를 정정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역할을 바꾼다.	15분
휴식		10분
설명	질문할 때의 주의사항	15분
	듣기의 목적?	
	듣기 스타일 ; 4) 경청하기 듣기 주기 지도 : 5가지 기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의 기울이기 2) 인정하기 3) 정보요청하기 4) 요약하기 5) 질문하기 	
시범	<p>진행자의 듣기 주기 시범 (보조 진행자 1명이 임의의 주제에 대해 말을 하고 진행자는 이를 매트 위에서 듣기 주기에 맞추어 듣는다)</p>	10분
실습4	<p>듣기 연습 (단위 : 2쌍 부부)</p> <p>한 쌍은 실습하고 한 쌍은 이를 관찰하며 코칭한다. 실습하는 부부는 한 사람은 어떤 주제에 대해 말을 하고 배우자는 이를 듣기 주기 매트 위에 올라 듣기 과정을 실습한다. 이후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역할을 바꾼다. 한 부부의 실습이 끝나면 코칭을 하던 부부와 역할을 바꾼다.</p>	20분
토의	<p>예전의 자신의 듣기 습관과 무엇이 다른가? 이와 같은 듣기 주기에 의해 상대방이 들었을 때 말하는 사람의 느낌은 평소와 어떻게 다른가?</p>	5분
실습5	<p>수레바퀴와 듣기 주기의 연결 (단위 : 2쌍의 부부)</p> <p>한 쌍은 실습하고 한 쌍은 이를 관찰하며 코칭한다. 실습하는 부부는 한 사람은 어떤 주제에 대해 수레바퀴 매트 위에서 말을 하고 배우자는 이를 듣기 주기 매트 위에 올라 듣기 과정을 실습한다. 이후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역할을 바꾼다. 한 부부의 실습이 끝나면 코칭을 하던 부부와 역할을 바꾼다.</p>	20분
정리	3 회기의 내용을 요약, 정리	5분
과제	<p>자각의 수레바퀴로 문제 두 가지에 대해 실습하고 이를 배포된 과제 양식에 기록해 오기. 무엇이 잘 되지 않는가? 나는 자각의 수레바퀴와 듣기 주기의 영역 중 어느 영역이 힘들고 이 이유는 무엇일까?</p>	

4 회기

주제	문제 그리기	
목표	1. 문제 해결로 나가기 위한 과정 습득	
복습	듣기 주기 지도	10분
	듣기 방식에 대한 관련 동영상 시청	
	나의 듣기, 말하기 스타일에 대한 자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습1	지난 한 주간 나의 듣기 방식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나? 무엇이 어려운가? 어떤 생각들을 하였나?	15분
	문제가 결과에 이르는 과정 말하기, 듣기 스타일에 따라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가? 협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문제 그리기 9단계 1 단계 : 문제 확인하고 정의하기	15분
실습2	현재 우리가 가진 문제를 확인하고 정의하기 (단위 : 부부) 우리가 가진 문제 중 1위~3위까지를 정한다. 그 중 3위의 것을 선택	10분
설명	2 단계 :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계약하기	5분
실습3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계약하기 (단위 : 부부)	10분
설명	3 단계 : 문제 완전히 이해하기	5분
실습4	문제 완전히 이해하기 (단위 : 부부) 자각의 수레바퀴와 듣기 주기 매트 위에서 문제 이해를 위해 충분한 대화	15분
휴식		10분
설명	4 단계 : 소망하기	5분
실습5	과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 (단위 : 부부) 1) 나 자신을 위한 소망 2) 배우자를 위한 소망 3) 우리를 위한 소망	10분

설명	5 단계 : 대안 만들기와 검토하기	5분
실습6	실습 6 : 대안 만들기 / 대안 검토하기 (단위 : 부부) ;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남편? 아내? 우리 모두? 이를 화살표 상, 하로 나타낸다.	15분
설명	6단계 : 가장 적합한 미래 행동 선택	5분
실습7	실습 7 : 구체적인 미래 행동 결심하기 (단위 : 부부) ;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기록한다	10분
설명	7 단계 : 가장 적합한 행동, 결심 검증 (과연 가능한가?) 8 단계 : 계획한 행동 실천하기 9 단계 : 결과 평가	15분
	가상의 문제에 대해 1 단계~ 9 단계의 과정 예시	
정리	4 회기의 내용을 요약, 정리	5분
과제	실습2에서 작성한 문제의 순위 중 1위, 2위의 문제를 문제 그리기 9 단계에 맞추어서 논의 한다. 논의 하면서 자각의 수레바퀴 매트와 듣기 주기 매트가 사용되어야 하며 이 과정을 배포된 과제 기록 양식에 기록해 오기	

5 회기

주제	성 의사소통	
목표	1. 남녀 성차 이해 2. 왜곡된 성지식 수정 3. 성 의사소통 습득	
발표	부부들은 각자 문제 그리기 9단계 실행한 과제를 한 부부씩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한다	20분
	다른 부부들은 발표 내용에 대한 짤막한 피드백을 준다	
설명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가벼운 도입 - 어느 남자 초등학생이 쓴 <여자>라는 동시 - 남성과 여성의 이상형에 대한 동영상	60분
	성차를 설명함에 있어서, 정상분포 곡선을 이용하여 이는 평균의 차이일 뿐 모든 남, 녀의 대해 완전히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을 설명.	
	진화 심리학의 개념 남성과 여성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려는 전략을 원시 시대를 배경으로 설명	
	여성들이 바라는 남성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	
	성기관 남성 성기관의 해부적 지식 남성 성기관의 발기와 사정에 이르는 과정 여성 성기관의 해부적 지식 남성 성기 크기에 대한 잘못된 지식	
	성에 대한 남녀의 차이 어떠한 자극에 민감한가? 성 욕구 성행위의 목적 오르가슴의 차이 나이에 따른 성반응의 변화	

	<p>성에 대한 관념</p> <p>여성이 원하는 성</p> <p>오르가슴에 대한 왜곡된 지식</p> <p>적정한 성 관계 횡수는?</p> <p>자위행위에 대한 오해</p> <p>성 관련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p> <p>어떻게 의사소통 할 것인가</p>	
휴식		10분
시범	성관련 내용에 대한 의사소통 예시를 자각의 수레바퀴를 이용하여 시범	10분
실습	<p>성 의사소통</p> <p>자각의 수레바퀴와 듣기 주기가 인쇄된 종이를 놓고 의사소통 훈련을 한다.</p> <p>각자의 부부는 다른 부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간으로 분할하거나 멀리 떨어져 실습을 하게 한다. 조명을 끄고 각 부부마다 초를 놓아둔다.</p>	25분
토론	성 의사소통의 느낌은 어떠했는지?	10분
정리	5 회기의 내용을 요약, 정리	5분
과제	다음 회기까지 부부관계를 최소 1회 가질 것을 권유 함	

6 회기

주제	총 정리	
목표	1. 전체 프로그램 내용의 총체적 이해, 보완 2. 우리 부부의 이해	
복습 & 보완 설명	협동적 결혼이란? 협동적 관계를 <배려>로 표현한다면.	10분
	말하기 스타일에서 일상생활 말하기와 통제식, 다툼식, 양심품고 말하기의 관계	
	자각의 수레바퀴 어떤 자각의 수레바퀴 영역을 주로 사용하는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1) 행동과 감각정보만 주로 사용하는 유형 2) 감각정보, 사고, 소망만 주로 사용하는 유형 3) 행동, 소망, 감정만 주로 사용하는 유형 4) 소망의 영역과 2번 말하기 스타일이 결합된 형태 5) 전체적으로 말 수가 적은 유형	20분
	듣기 주기 더 많은 정보 요청하기 요약하기	15분
	문제 그리기 문제 그리기 9단계의 축소판 (6단계)	5분
	성 의사소통 왜곡된 성지식 검토 성관계시 수행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10분
	휴식	10분
전체 나눔	그동안 함께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 어떤 점이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나?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 자신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각	50분
	각 부부들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검사	사후검사(K-MSI, CPQ-SF, 성 만족도 척도)	30분
정리	마무리 및 인사	5분

결혼 만족도 검사

검사는 당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그 문항이 당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O표 해 주십시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이 검사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2	내 배우자는 그때그때 내 기분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3	남편이 가족을 이끌어야 한다.				
4	내 배우자는 종종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5	나는 결혼생활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6	아이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7	우리는 다른 부부들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8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9	때때로 나는 배우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서 친구에게 대신 얘기한다.				
10	우리는 다들 때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한다.				
11	때때로 나는 배우자를 몹시 떠나고 싶다.				
12	내 배우자는 나만큼 성생활을 즐긴다				
13	내 배우자는 때때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14	결혼에서 평등한 관계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대체로 남편이 가족 일에 대해 더 큰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15	우리는 성(sex)에 대해 솔직하게 의논하지 않는다.				
16	나는 결혼생활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이 있다.				
17	나는 배우자와 성관계를 거의 갖지 않는다.				
18	내 어린 시절은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했던 것 같다.				
19	내 배우자는 나를 때린 적이 있다.				
20	나는 돈 문제에 관해서 배우자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우리는 같이 이야기할 주제가 많지 않다.				
22	나는 좋아하지만 배우자는 좋아하지 않는 성행위가 있다.				
23	내 배우자는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잔소리를 한다.				
24	내 배우자는 때때로 나를 속상하게 한다.				
25	내 배우자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점들이 있다.				
26	내 배우자가 화가 나서 나를 때릴까봐 걱정할 것은 없다.				
27	내 부모님의 결혼생활은 다른 부부들보다 행복했었다.				
28	내 배우자는 나보다 자신의 부모님이나 집안일에 더 신경을 쓴다.				
29	경제적 문제 때문에 우리의 결혼생활이 어려웠던 적은 전혀 없었다.				
30	내 배우자는 내 기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 한다.				
31	내 배우자는 화가 났을 때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 적이 있다.				
32	우리 부부는 시가 혹은 처가 일로 자주 싸운다.				
33	우리 결혼생활에는 심각한 어려움들이 있다.				
34	내가 슬퍼할 때마다 내 배우자는 나에게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 준다.				
35	맞벌이 부부인 경우 아이가 아플 때, 남편도 결근을 하고 아이를 돌봐야만 한다.				
36	내 배우자는 어려움 없이 비판을 받아들인다.				
37	나는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에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38	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만 직장에 다녀야 한다.				
39	나는 우리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한 적이 있다.				
40	우리는 언쟁할 때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 같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내 배우자는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42	견해 차이가 있을 때, 내 배우자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43	우리는 별거하거나 이혼할 뻔한 적이 있다.				
44	내 배우자는 나의 성적 만족감에 대해 배려하지 않을 때가 있다.				
45	내 배우자는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46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여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47	우리의 성생활은 매우 만족스럽다.				
48	내 결혼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실망스럽다.				
49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성관계를 원한다.				
50	나의 가정은 행복했다.				
51	나는 내 배우자가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을까봐 걱정한 적이 있다.				
52	우리 가족의 앞날은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되어 보인다.				
53	우리는 함께 취미생활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54	우리는 성관계 횟수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				
55	우리는 돈 문제로 거의 싸우지 않는다.				
56	나는 단 한순간도 결혼을 후회한 적이 없다.				
57	내 결혼생활에는 내가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58	내 배우자는 아무리 화가 나도 내게 물건을 던진 적은 없다.				
59	나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60	내 배우자는 나와 배우자 집안관의 갈등이 있을 때 자기 집 안 편을 더 많이 든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우리의 수입이 좀 더 많아진다면, 우리 결혼생활의 문제는 더 줄어들 것이다.				
62	나는 배우자에게 언제나 사랑과 애정을 느끼지는 않는다.				
63	내 배우자는 화가 나면 때때로 나에게 고향을 치거나 소리를 지른다.				
64	내 배우자는 내가 자기 부모님께 잘 하기를 지나치게 바란다.				
65	우리는 매우 자주 말다툼을 한다.				
66	내 배우자는 때때로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다.				
67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주부의 역할이어야 한다.				
68	내 배우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해서 내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69	만일 내가 내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70	가족 경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71	나는 때때로 우리 결혼에 대해서 꽤 낙심하게 된다.				
72	우리 사이에는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73	때때로 나는 배우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74	우리는 견해 차이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한다.				
75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부보다 더 행복하다.				
76	배우자와 사소한 의견차이가 종종 큰 언쟁으로 발전한다.				
77	나는 매우 슬픈 감정도 배우자에게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다.				
78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낼 때도 있다.				
79	우리 부부가 성생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80	나의 부모님의 결혼생활은 모범적이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81	나는 외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82	나는 배우자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				
83	내 배우자는 아무리 화가 나도 나를 밀치거나 먹살을 잡은 적이 없다.				
84	내 배우자는 가정경제를 잘 운영한다.				
85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아주 많다.				
86	내 배우자는 때때로 성에 대해 열정이 거의 없는 것 같다.				
87	예산에 맞춰 가게를 꾸려가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배우자와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된다.				
88	나는 배우자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꽤 만족하고 있다.				
89	내 배우자는 내가 바라던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다.				
90	내 배우자는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다.				
91	나의 부모님은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92	내 배우자는 자기 부모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내가 들어 주기를 원한다.				
93	내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94	내 배우자는 때때로 나를 비참하게 한다.				
95	우리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옛날만큼 재미가 없다.				
96	나는 배우자 가족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				
97	우리 결혼생활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해서 중요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98	내 배우자는 재가 힘들 때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준다.				
99	아내의 직업과 남편의 직업은 똑같이 중요하다.				
100	내 배우자는 나에게 화가 나더라도 내 의견을 존중한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1	우리 결혼생활은 나쁜 점보다 좋은 점들이 훨씬 많다.				
102	결혼한 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보육원과 육아원이 생겨야 한다.				
103	내 생각에 우리 결혼은 성공적이다.				
104	내 배우자는 때때로 내 성격의 어떤 면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105	내 배우자는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구한다.				
106	내 배우자는 종종 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107	나는 결혼생활에서 거의 불행함을 모르고 지내왔다.				
108	우리는 언쟁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109	나의 부모님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다.				
110	우리의 언쟁은 대부분 결론 없이 우울하게 끝나고 만다.				
111	나는 가끔 성생활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다.				
112	나의 부모님은 서로 사랑했다.				
113	나는 배우자가 성관계 중에 좀 더 부드럽게 대해 주었으면 한다.				
114	내 배우자는 자기 가족이 나에게 험담을 해도 가만히 있는다.				
115	내 배우자는 내 몸에 멍든 자국이나 상처를 남긴 적이 있다.				
116	우리는 가게의 수입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함께 결정한다.				
117	우리는 취미와 여가생활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118	내 배우자는 나와 의논하지 않고 많은 물건을 구입한다.				
119	우리는 경제적 문제를 의논할 때마다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120	내 배우자는 나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1	내가 최선의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 것인지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				
122	내 배우자는 내 몸에 심한 상처(멍든 자국, 매 자국)를 입힌 적이 있다.				
123	결혼 전에 빨리 집을 떠나 독립하기를 원했다.				
124	내 배우자는 나와 배우자 가족 간의 갈등을 잘 이해하고 도와준다.				
125	나는 배우자가 나와 취미생활을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				
126	내 배우자와 나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				
127	나는 배우자와 매일 최소한 한 시간은 같이 보낸다.				
128	내 배우자는 자기 가족과 나를 비교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129	나는 내 결혼생활의 많은 부분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긴다.				
130	내 배우자는 때때로 나에게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				
131	빨래, 청소, 육아와 같은 일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				
132	우리의 언쟁은 자주 둘 중 한명이 감정이 상하거나 우는 것으로 끝난다.				
133	나는 배우자와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 볼 생각을 종종했다.				
134	남편의 직업에 따라 거주지를 정해야 한다.				
135	우리 결혼생활이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의 결혼생활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136	우리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성을 잃고 화를 내곤 한다.				
137	우리는 결혼생활에서 사랑과 애정을 많이 표현한다.				
138	내 배우자는 너무 쉽게 가정이 상한다.				
139	내 결혼은 매우 만족스럽다.				
자녀가 없는 경우 여기에서 검사를 중단하세요. 자녀가 있으신 분만 아래 문항에 답해 주세요					
140	우리는 아이들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나 의견이 일치한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1	우리의 부부관계는 종종 아이들 때문에 악화 된다.				
142	우리는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				
143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할 화제가 많지 않다.				
144	내 배우자는 아이를 돌보는데 동등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				
145	아이를 갖는 것이 내가 바랐던 것만큼 만족감을 주지는 않는다.				
146	내 배우자는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147	우리 아이들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만큼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148	우리는 아이들 문제로 거의 싸우지 않는다.				
149	우리 아이들은 내 감정에 대해 무관심하다.				
150	우리 아이들은 나한테 자신의 일상사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151	우리는 아이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함께 결정한다.				
152	나는 자주 아이들과 집안일을 함께 한다.				
153	아이들 때문에 우리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다.				
154	우리 아이들은 집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성실하다.				
155	나는 자주 아이들과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156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157	내 배우자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158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은 나와 거의 비슷하다.				
159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160	우리는 언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벌을 주어야 할지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한다.				

6	우리 부부는 둘 다 서로를 비난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린다	1	2	3	4	5	6	7	8	9
7	우리 부부는 둘 다 서로에게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타협점을 찾는다.	1	2	3	4	5	6	7	8	9
8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요구하면, 아는 물러나서 대답하지 않거나 더 이상 의논하는 것을 꺼린다.	1	2	3	4	5	6	7	8	9
9	내가 잔소리를 하고 요구하면, 아내는 물러나서 대답하지 않거나 더 이상 의논하는 것을 꺼린다.	1	2	3	4	5	6	7	8	9
10	내가 내 입장을 설명하고 옹호하려 하면, 아내는 나를 비난한다.	1	2	3	4	5	6	7	8	9
11	아내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옹호하려 하면, 나는 아내를 비난한다.	1	2	3	4	5	6	7	8	9

부록 4 : 성 만족도 척도

	문 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배우자에 대해 만족한다.					
2	나는 성교 횟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3	나와 배우자의 성 생활은 단조롭다.					
4	성교 후 나는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5	성교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6	나는 성에 관해 별 흥미가 없다.					
7	성교를 하면 대개는 만족스럽게 오르가슴을 느낀다.					
8	성교 전 애무를 할 때 나는 매우 흥분한다.					
9	나는 배우자를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 를 염려한다.					
10	나는 배우자와 함께 성 문제를 터놓고 대화 한다.					